

어학연수 프로그램 귀국 보고서

파견국가	미국	기관	Boise State Uni.	파견기간	2024.06.27. ~ 2024.07.26.
프로그램	Intensive English Pro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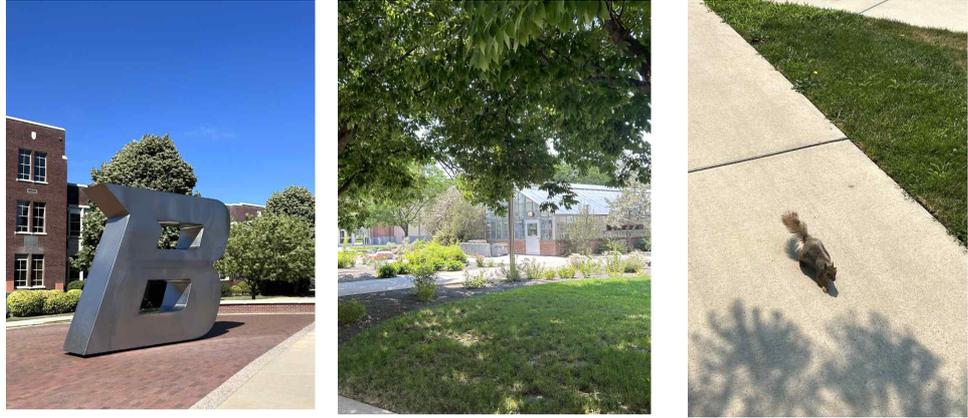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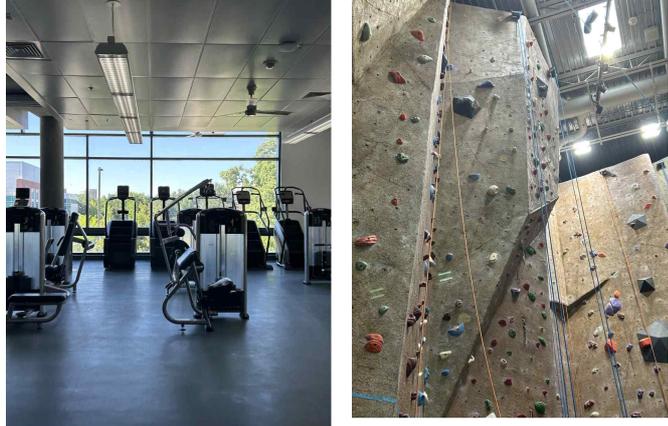
성명			
소속			
연락처			

프로그램 지원 사유	대학교에서 시행하는 교환학생을 지원하고 싶었으나, 입학 후 코로나로 인해 몇 년 간 사라진 교환학생과 그 이후 대폭 감소한 사업으로 인해 졸업 전 어학연수라도 다녀오고 싶은 마음에 지원 함.		
프로그램 준비 과정	프로그램 등록 및 결제	어학원에서 금액이 총 합산 된 파일을 주시기 때문에 등록 관련은 파일에 따라서 이행함, 파일을 주신 후 1주일 정도의 입금 기간을 주심.	
	비자, 항공권, 여행자 보험	각자 알아서 진행해야 함. 이 부분들은 정확하지 않고, 스스로 상황을 보고 진행해야하는 부분처럼 느껴졌음.	
	기타 정보 (환전, 준비물 등)	준비물은 OT 진행시 필수품과 미국 기숙사에서 없으면 힘들 법한 물품들을 자세히 알려주심. 이 부분을 보고 참고해서 챙겨갔음. 요즘은 카드로 모든 것을 진행할 수 있고, 현금이 필요할 때에도 ATM을 이용할 수 있어 학생마다 제각각이었다. 본인은 100만원 정도로 매우 많이 해간 편이었다.	
파견대학 기본 정보	기관 정보	미국의 아이다호 주, 그 중에서도 보이시에 위치하고 있는 주립대학교였다. Boise State University.	
	교육 시설	한달동안 학교의 건물들을 모두 파악하지 못했을 정도로 규모가 컸음 (한국 대학 대비 커다란 것인 것 같다. 미국의 대학은 모두 크기가 크니)	
	기숙사 시설	2인 1실 혹은 4인 1실로 구성되어 있었다. 타인과 함께 방을 쓰더라도 1인 1침실과 1인 1세면대가 있어 화장실만 공유하는 타입, 거실과 주방이 있는 방에 당첨된다면 이곳들도 공용 공간으로 사용됨.	
	편의 시설	교내에 셔틀버스가 두 대 운영됨. 한 대는 학교 내부를 도는 버스, 다른 한 대는 근처의 다운타운까지 나가주는 버스. 덕분에 더운 날씨에 편히 움직임. 하지만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기타 정보	한국은 다른 길거리에 비해 대학가가 더 지저분하고 시끄러운 느낌이 강하다면, 미국은 정반대이다. 대학내부는 정말 깨끗하고 조용하고 안전한 다른 세상의 분위기 - 흡연, 음주 모두 불가. 하지만 대학캠퍼스를 나가는 순간은 각자 안전에 유의해야 함.	

지역·생활 정보	교통 여건 및 비용	편의 시설에 적은 것과 동일. 셔틀 이외에 가야하는 공간들은 대부분 우버를 활용함. 저렴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파견생들과 함께 날짜와 시간을 맞춰 이동하는 것을 추천한다.
	식사 여건 및 비용	한 끼 평균 3만원으로 잡고 생활하는 것이 좋다. 이보다 아끼려면 더 아낄 수 있으나, 수업도 들으며 오후 시간에 짧게나마 관광도 즐기고 싶다면 해먹을 수 있는 시간은 적어질 확률이 높으며, 관광지에서 유명한 식당에 가보는 것도 해외의 묘미이기 때문.
	관광지 정보	보이시는 미국의 시골같은 동네이기 때문에 근처에 편의시설이나 관광지가 존재하진 않는다. 우버를 타고 나가야한다. 하지만 다른 파견생들과 친분을 쌓고 함께 날짜를 맞춰서 여기저기 가보는 것을 추천한다. 상당히 좋은 추억으로 남기 때문이다.
	기타 정보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마트는 걸어서 25분 정도에 위치해 있다.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매우 거리가 있는 편이며, 간단하게 사러나갈 편의점 같은 곳도 없기 때문에 장을 보러 갈 때 꼭 필요한 것들을 잘 메모해서 나가길 바람.
교육 정보	강의 구성	reading & writing, communication, integrated skills & experiential learning 총 세가지 강의로 구성되어 있음.
	교육 내용	reading & writing - writing이 주요 수업이며, 주어진 주제로 글을 쓰고 일주일에 한번씩 발표를 함. communication - 다양한 학생들과 영화로 대화하는 것이 목적 integrated skills & experiential learning -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 시간으로 공부가 주가 아닌 학교와 이 동네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
	강사진	어학연수 파견 전 다양한 부분에 대한 시험을 치른다. 이 시험을 기반으로 파견생마다의 반이 배정된다. 반에 따라 강사진의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았다. 나의 강사 분들은 매우 열정 넘치시는 분들이었다.
	정규수업 외 교육 정보	수업이 끝난 오후 개별적으로 선택해서 갈 수 있는 tea & talk이라는 시간이 있다. 필자는 수업 이후에는 진이 빠져서 한 번도 참여한 적 없음. 하지만 참석한 파견생들은 저 공간에서 외국인 친구들은 사귀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다.
	기타 정보	파견 전 치루는 시험으로 반이 배정된다. 절대 시험을 대충보지 말 것. 한달동안의 반이 결정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기타활동 정보	기타 활동 내용 및 비용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이나 주말은 자유롭게 활용 가능. 이 시간들은 모두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 본인은 미국의 공휴일과 주말을 이용하여 미국의 다른 주 여행을 다녀옴. 단 다른 주 여행을 계획 시 비행기 값에 따라 여행비가 크게 좌지우지 된다. 공휴일 때문에 비싼 비행기 값을 지불 함.
	기타 정보	한 달이라는 시간이 긴 것 같으면서도 수업과 생활을 하면서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짧다. 여행 후 평일에 바로 수업을 들어야하기 때문에 이도 고려하는 것이 중요.

프로그램 참가 결과	프로그램 성과	졸업 전 꼭 가보고 싶었던 해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서 행복감을 느꼈다. 수업도 수업이지만 평소에 마트나 식당에서 영어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들이 큰 영향을 주었던 것 같다. 평소에 잘 활용하지 않는 부분들도 영어로 대화하고 이해해야 하는 부분들을 통해 영어를 가까이 하며, 소통을 위해 모르는 단어들은 바로바로 찾아보고 소통하는 부분에서 학습을 하고 있다고 크게 느꼈다. 가기 전에는 다른 문화와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에 간다는 것이 막막했지만 다녀온 지금은 벌써 그립고, 다시 가고 싶은 마음뿐이다.
	프로그램 장점	영어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큰 캠퍼스를 경험하며 다양한 시설과 다양한 국가의 친구들을 만나볼 수 있다.
	프로그램 개선 요구 사항	파견 전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정보 전달이 늦게 이루어졌다.
기타 사항	기타 참고사항	여름철 보이시는 매우 건조하다, 때문에 상상 못한 건조함을 체험했다. 평상시에는 건조한 것을 느끼지 못했지만 적응기간인 첫 주에는 자고 일어나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어학원 측에서 가습기를 챙기는 것을 추천했지만, 짐의 부피와 이 정도 건조함을 상상하지 못해서 챙기지 않았다. 다시 갈 수 있다면 옷을 조금 빼더라도 가습기를 챙길 것이다.
	추후 참가자들을 위한 조언	<p>한 달간 조금이라도 편하게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적어보려고 한다. 우선 생활하고 수업 외에 시간을 보낼 때 사용할 충분한 돈, 많이 챙겨가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건조함에서 목을 구원해줄 가습기, 요리를 하고 먹을 때 필요한 간단한 조리기구들 냄비 겸 프라이팬, 수저, 칼, 주방가위, 접시, 소금 정도는 챙겨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필자는 접시를 챙겨가지 않아서 구매한 다음에 캐리어 무게로 인해 두고 옴. 버려도 괜찮을 법한 쪼리 신발 - 생각보다 공원에 있는 물가의 물살이 빨라서 신발 한쪽 잃어버린 파견생들이 꽤 많았음.</p> <p>수업을 하면서 보내는 한 달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체력과 건강이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파견생들이 짧게 며칠이라도 아프고 지나갔기 때문에 본인에게 잘 맞는 상비약, 비타민 등의 약을 챙겨가는 것도 필수일 것으로 보인다.</p> <p>미국 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어플을 한국에서 미리 깔고 회원가입까지 마치고 가길 추천한다. 인증번호 인증 부분에서 막히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p> <p>마지막으로는 최대한 많은 음식을 가져가는 것이다. 햇반과 라면, 김치 등등 주로 느끼한 음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주 생각나고, 자주 먹게 된다. 참고로 본인은 햇반과 라면 포함 15개 가져갔지만 부족했다.</p>

< 추가 - 첨부사진 >

<p>학교 풍경</p>	 <p>- (왼쪽부터 순서대로) 학교 로고 조형물 BIG B, 캠퍼스 내 풍경, 일상 다람쥐</p>
<p>학교 식당</p>	 <p>- 학생 구내식당, 한 끼에 약 2만원. 미국의 어느 식당과 비교해 보았을 때도 매우 저렴한 편이고, 뷔페식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식사료 뿐만 아니라 음료, 디저트도 준비되어 있다. 수업과 수업 사이가 짧은 점심시간에 종종 이용하기에 좋다.</p>
<p>학교 운동시설</p>	 <p>- 학교 레크레이션 센터. 학교에 등록 되어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달에 약 7만원 정도에 회원권을 구매 가능하다. 헬스장, 농구장, 스쿼시, 수영장, 클라이밍 장이 있으며 클라이밍 장은 매일이 아닌 정해진 요일과 시간만 이용할 수 있다. 각 장소마다의 이용 가능한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 공간을 이용할 수 있어서 좋았다.</p>

학교 주변풍경



- 학교에서 제일 가까운 공원 <줄리아 데이비슨 공원> 발을 담글만한 존이 많지만 생각보다 물살이 세서 신발을 잃어버리기 딱 좋다, 학교를 지나 나가면 있는 산책로 저 다리를 지나서 5~10분 정도 더 걸으면 베이글 맛집이 있다.

학교 수업시간표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2023.08.28	2023.08.29	2023.08.30	2023.08.31	2023.09.01
Continuation 8:20-11:40				
Reading & Writing 11:45-12:15				
2023.09.04	2023.09.05	2023.09.06	2023.09.07	2023.09.08
Continuation 8:20-11:40				
Reading & Writing 11:45-12:15				
2023.09.11	2023.09.12	2023.09.13	2023.09.14	2023.09.15
Continuation 8:20-11:40				
Reading & Writing 11:45-12:15				
2023.09.18	2023.09.19	2023.09.20	2023.09.21	2023.09.22
Continuation 8:20-11:40				
Reading & Writing 11:45-12:15				

학교 기숙사



- 기숙사 복도, 기숙사 내 공용주방, 직접해먹는 식사

학교 셔틀버스



어학연수 프로그램 귀국 보고서

파견국가	미국	기관	Boise State University	파견기간	2024.06.26~2024.07.27
프로그램	하계 단기 어학연수				

성명			
소속			
연락처			

프로그램 지원 사유	<p>예전부터 대학에 들어가면 꼭 교환학생생활은 해봐야지하고 생각을 하곤했습니다.하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3학년이 될 때까지 교환학생을 못갔는데 부담없이 한달 단기로 갔다올 수 있는 단기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알게되고 바로 지원하게되었습니다.</p>		
프로그램 준비 과정	프로그램 등록 및 결제	<p>아마 4월부터 모집을 하고 신청서를 제출해서 4월 말쯤에 합격자 발표가 나고 단독방이 생겼던것 같습니다. 각 나라별로 프로그램 담당자들께서 단독방에 초대해주시고 안내를 해주시는데 5월 말쯤 교환학교 입학허가증이 발급되고 확실해진 이후에 자세한 금액이 나와서 원화계좌로 입금했습니다.</p>	
	비자, 항공권, 여행자 보험	<p>각자 알아서 준비해야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 담당자들께서 추천해주신 보험사님이 계셔서 저는 그분께 출국 전날에 부탁드렸습니다. 항공권은 최대한 여유가 되는대로 빨리 끊는 것을 추천드리고 여행사는 최대한 안 끼는걸 추천합니다. 여행사의 악덕행위를 아시는 분들이나 일정을 절대 변경할 여지가 없으신분들은 괜찮지만 혹시나하고 일정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으시거나 프로그램 끝나고 더 여행하고싶어질 수도 있을텐데 이런분들은 무조건 비싸더라도 공홈으로 하세요. 저는 학기 중 너무 바빠서 일단 미국으로가서 일정을 확정시켰는데 국적이 공홈예약덕분에 항공권변경이 용이했습니다.</p>	
	기타 정보 (환전, 준비물 등)	<p>환전은 큰 단위로 해두는게 좋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이시 대학으로 여름에 파견되시는 분들은 수분크림이나 알로에젤 추천드립니다. 건조해서 피부가 많이 망가지는게 느껴졌습니다.</p>	
파견대학 기본 정보	기관 정보	<p>아마 저희가 저희학교에서 처음으로 보이시대학으로 파견되었을겁니다. 무척이나 조용한 소도시 지역이어서 별 정보 없이 갔었는데 보이시주립대학은 미식축구로 유명한 대학교이고 아이다호주의 보이시 지역내에서 모든 거주민들이 알아주는 대학교였습니다.</p>	
	교육 시설	<p>교실 좋습니다. 다만 건물 간에 수업 이동할 때 워낙 학교가 커서 좀 걸어야해요</p>	
	기숙사 시설	<p>기숙사 새로 지어져서 너무 좋았습니다. 운이 좋으면 주방 있는방 배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방 없는 방이어도 공용주방 있어서 요리해 먹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후라이팬이나 조리도구들은 가서 사야하긴 하지만요. 냉장고,냉동고,인덕션 다 있습니다.</p>	
	편의 시설	<p>학교 내에 레크레이션센터라고 헬스장 건물이 있습니다. 단기어학연수 학생들은 아마 45달러 내고 한달동안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을거예요. 자전거도 무료로 빌릴 수 있고 라임자전거나 킥보드 등의 공유이동수단들이 학교 내에 많아요.</p>	
	기타 정보		

지역·생활 정보	교통 여건 및 비용	아마 여러 번의 경유편으로 비행기 이동하시는 분들 제외하면 대부분 인천-시애틀-보이시 이렇게 한번은 무조건 경유하셔야 할겁니다. 직항 없어요. 항공권 따로따로 사기보다 인천에서 보이시 로 검색해서서 한번에 연결 항공권 사시는거 추천드립니다. 환승시간 부족이나 비행기 오버부킹 같은 이슈 발생시 연결항공권 사시면 카운터에서 빨리 대처받을 수 있기때문이에요. 보이시주립대학교 학생들은 학생증 갖고다니면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교버스 타고 다운타운 시내에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주말에는 버스운영을 안하고 저녁 7시면 마감해서 그 이외시간들에는 택시 타셔야합니다.
	식사 여건 및 비용	고환울시기에 갔던 저는 외식이 너무 비싸서 대부분 기숙사에서 룸메들이랑 요리해 먹었습니다. 한끼에 보통 15~20달러 했던것같네요.기숙사에서 우버이츠로 배달시켜먹을 수 있습니다.
	관광지 정보	아이다호주 시청이 보이시 다운타운의 중심에 있습니다. 핵심 랜드마크라고 생각하고 정말 예쁘니 무조건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기타 정보	미국은 멕시칸 요리를 정말 잘하기 때문에 어느 곳이든 멕시칸 요리를 한번쯤은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다운타운의 matador 마타도르 맛있습니다. 가서 외국인 친구들이나 선생님들께 맛집 추천 부탁드리면 흔쾌히 잘 알려주시니 적극적으로 물어보세요. 다운타운에 STIL 아이스크림집이 제 최애였습니다.
교육 정보	강의 구성	Reading&writing, communication, integrated english skill 수업과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는 tea&talk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교육 내용	Reading&writing 에서는 스피치 대본과 에세이 작성을 교육받았고 communication과 integrated skill수업에서는 주로 회화적인 부분을 교육받았습니다. 세가지 강의 모두 마지막에 발표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강사진	모두 좋은 분이셨고 각 난이도별로 선생님이 다를거예요.
	정규수업 외 교육 정보	Tea&talk 시간은 선택적으로 참가하는 수업이었는데 외국인 친구들도 함께 모여서 게임도하며 소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타 정보	학교 너무 좋았어요
기타활동 정보	기타 활동 내용 및 비용	주변에 찾다보면 놀거리 엄청 많으니 친구들과 구글맵으로 열심히 검색해서 매주 어떤 액티비티할지 찾는 재미가 있을거예요. 대표적인 액티비티는 '보이시리버 플로팅'인데 플로팅이란 말 그대로 튜브타고 물에 떠서 1-2시간 래프팅하는 활동입니다. 보이시 명물 액티비티니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기타 정보	

프로그램 참가 결과	프로그램 성과	갔다와서 영어회화에 예전보다 두려움이 없어진것같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학교에서 배운 수업도 좋았지만 남는시간이나 주말에 다운타운 카페,음식점에서 직원들과 혹은 현지인 친구들과 대화를 했을때 더 영어다운 표현을 알기 좋았고 영어실력이 늘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장점	짧은 시간이지만 계속적으로 영어를 쓰게함으로써 조금 더 친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개선 요구 사항	communication과 integrated skills 수업이 비슷해서 분리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기타 사항	기타 참고사항	국제운전면허 있으면 좋습니다.
	추후 참가자들을 위한 조언	프로그램 기간동안 후회없이 하고싶은거 모든거 하고 돌아오세요! 프로그램 시간표가 가봐야 확실하겠지만 주로 금토일정도 여행다녀올 수 있을테니 근교여행이나 놀만한곳 찾아서 갔다오시는거 추천드려요. 한 학기도 아니고 한달이라는 시간이 짧아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걸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 음식 미국가면 마트에서 신라면,불닭,고추장 등 팔기는 하는데 비싸니까 챙겨올 수 있으면 챙겨오시는거 추천드립니다. 가서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사귀고 열심히 지내시면 인생에서 잊지못할 한달이 되실거예요.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어학연수 프로그램 귀국 보고서

파견국가	미국	기관	Boise state university	파견기간	2024.06.26~2024.07.27
프로그램	Intensive english program				

성명			
소속			
연락처			

프로그램 지원 사유	영어실력 향상과 해외 체험을 위해 지원		
프로그램 준비 과정	프로그램 등록 및 결제	오픈채팅방을 통해 프로그램 연결해주는 분이 대체로 도움을 주심.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비용이 정리된 파일을 보내주시고 컨설팅해주는 분의 계좌로 결제함.	
	비자, 항공권, 여행자 보험	비자는 컨설팅해주는 분이 말씀하신대로 esta비자를 발급받음. 항공권은 각자 알아보고 시애틀로 경유하는 항공권으로 구매함. 여행자 보험도 각자 알아보고 안전한 보험사에서 보험을 들음.	
	기타 정보 (환전, 준비물 등)	환전은 대부분 트레블월렛에 해감. 흑시모를 현금도 조금 환전해감.	
파견대학 기본 정보	기관 정보	Boise state university	
	교육 시설	깨끗한 교육 시설을 보유함. 수업했던 교실 세 곳 모두 깨끗하고 수업받기 좋은 시설을 지녔음.	
	기숙사 시설	주방이 딸린 방은 넓고 살기 좋은 방이었음. 하지만 주방이 없는 방이 걸리면 공용주방을 써야한다는 점이 아쉬웠음.	
	편의 시설	스타벅스, 서브웨이 등 다양한 음식점이 있지만 방학 시즌이라 몇 개 빼고 다 문을 열지 않았음.	
	기타 정보	학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 안내받아 3주동안 먹은 식당보다 마지막주에 열린 식당의 퀄리티가 훨씬 좋아서 아쉬웠음.	

지역·생활 정보	교통 여건 및 비용	시내버스와 셔틀버스가 모두 무료인 점이 좋았음. 버스타고 근처 시내, 관광지는 대부분 갈 수 있었음.
	식사 여건 및 비용	근처에 식당이 많아서 좋았고 미국 물가에 비해 비싸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음.
	관광지 정보	보이시 타운 스퀘어(쇼핑몰), 더 빌리지 옛 메리디언(쇼핑몰) 같은 쇼핑몰과 디 팻같은 관광지가 있어서 여행할만 했음.
	기타 정보	확실히 학교 근처에는 홈리스가 아예 없고 시내 나가면 홈리스가 조금은 보임. 하지만 다른 도시에 비해 밤에 나가도 될 정도로 안전하다고 느낌.
교육 정보	강의 구성	Reading and writing, communication, integrated skills 3가지 수업으로 구성됨.
	교육 내용	한가지 주제에 대해 4주동안 수업을 함. ex) 교통수단, 보이시, 모험
	강사진	M, sharar, Adam
	정규수업 외 교육 정보	매주 수요일마다 optional tea&talk time을 하며 영어 프리토킹을 할 수 있는 수업을 함.
	기타 정보	
기타활동 정보	기타 활동 내용 및 비용	렉센터(운동센터)는 45달러, 자전거 렌트는 85달러였음.
	기타 정보	

프로그램 참가 결과	프로그램 성과	영어실력이 월등하게 늘진 않았지만 자신감이 조금 생김. 영어로 발표를 하는 시간이 있어서 연습을 통해 말을 더 잘할 수 있게 됨.
	프로그램 장점	미국에 비해 안전한 도시의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게 장점
	프로그램 개선 요구 사항	개선 사항이 딱히 없는 좋은 프로그램이었음.
기타 사항	기타 참고사항	한국음식을 파는 곳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서 한식을 챙겨가야 할 거 같음.
	추후 참가자들을 위한 조언	보이시는 어학연수를 가볼만한 좋고 안전한 도시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오랜기간 머물게 되면 조금은 지루할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기에 주말에 근처로 여행을 가는 것도 좋을 거 같다.

어학연수 프로그램 귀국 보고서

파견국가	미국	기관	Boise State University	파견기간	2024.07.01.~ 2024.07.26.
프로그램	Intensive English Program				

성명			
소속			
연락처			

프로그램 지원 사유	졸업 전 다양한 경험과 현지 학교에서만 배울 수 있는 활동을 하고자 하였으며, 다양한 외국 친구들을 만나 세계적인 시각을 넓히고자 프로그램을 지원함.		
프로그램 준비 과정	프로그램 등록 및 결제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양식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 학교에서 연결된 단체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연락이 왔고, 단체의 안내를 따라 단체 측으로 등록금을 지불하였고, 학교 측으로 직접적으로 결제하지 않았음.	
	비자, 항공권, 여행자 보험	비자는 어학연수 프로그램 합불 결과가 나오자마자 ESTA 비자를 신청하였고, 핸드폰 앱으로도 간단히 신청할 수 있음. 항공권은 인터넷에서 최저가 항공편을 찾아 결제하였으며, 항공권은 출국 날짜가 가까울수록 비싸지기 때문에, 되도록 출국날짜가 정해지는대로 끊는 것을 추천함. 비자, 항공권, 여행자 보험 모두 본인이 혼자 신청하고 등록해야함.	
	기타 정보 (환전, 준비물 등)	외환 통장을 하나 등록하는 것을 추천. 은행사마다 트래블 월렛이 있으며, 은행사마다 카드 혜택이 다르니 확인하고 해외결제 가능한 카드를 꼭 지참하기 바람. 해외결제가 되는 카드를 2개정도는 챙겨가는 것을 추천. 해외 결제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생각보다 현금 쓸 일이 별로 없음. 비상용으로 100~150 정도만 환전하는 것을 추천함.	

파견대학 기본 정보	기관 정보	도시 전체가 학교 분위기가 날 정도로 학교에 대한 이미지가 좋은 편이었음. 공항에서 멀지 않아 우버 타고 10분 정도면 도착할 거리. 보이시 강과 근접하여 산책하기 좋으며, 근처에 공원이 많아 자연 친화적임. 중간중간 비상호출벨도 있고, 학교가 넓어 아침에 조깅하기 좋음.
	교육 시설	넓은 교실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모둠 수업과 짝을 지어 하는 활동이 많았음. 처음에 교실 에어컨에 문제가 있어, 덥게 수업이 진행되었음. 다른 교실로 이동하였음. 교육 시설 건물에 정수기가 있지만, 물이 그렇게 깨끗해 보이지 않았음. 약간 노란 물이 나와, 기숙사에서 물병에 물을 채워서 수업 시간에 챙겨가는 것을 추천함.
	기숙사 시설	기숙사 시설은 훌륭했음. 2인 1실, 4인 1실로 나뉘어져 있었으며, 각각 방에는 개인 방이 존재하였음. 방 안에 부엌과 거실이 있는 방이 있었고, 아닌 방도 있었음. 방은 랜덤으로 배치되는 것 같았음.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함께 간 한국인들과 함께 방을 쓰게되었고, 소수의 학생들이 거기서 지내고 있었던 현지 학생들과 함께 방을 사용하였음. 다양한 휴게시설과 놀이시설을 사용할 수 있었고, 부엌이 없는 방의 학생들은 공유 주방 또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음.
	편의 시설	기숙사 건너편에 축구장과 비치 발리볼이 가능한 네트가 있었으며, 한 달에 45불 정도 하는 REC CENTER 체육시설이 훌륭하였음. 수영장과 실내 클라이밍, 헬스장, 러닝코스, 배드민턴, 농구, 탁구, 스쿼시 등등 많은 스포츠를 즐길 수 있었음. 바로 앞 학생회관에서는 볼링, 포켓볼 등을 즐길 수 있었고, 건물 내 스타벅스와 편의점, Chick-fil-A와 같은 간단한 카페와 음식점도 있었음. 학생회관 내 음식점들은 방학에는 단축근무를 하니 시간을 잘 신경써서 가야함.
	기타 정보	

지역·생활 정보	교통 여건 및 비용	버스는 학교 내와 학교 밖까지 운영하는 스쿨버스가 있고, 시내버스도 있음. 학교 학생증을 챙기면 학교 학생들에 한해서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음. 하지만 교통시설이 오래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시간을 주의해서 타고 다녀야함. 학교에서 한 달에 85달러를 내면 자전거를 대여해줌. 생각보다 비싼 값에 대여하지않았지만, 다운타운이나 장보러 자주 다닐 거면, 빌리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지만 추천하진 않음.
	식사 여건 및 비용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식당의 식권을 구매하라고 하였지만, 한 끼당 생각보다 비쌌고, 기숙사에 충분한 조리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식권 구매는 추천하지않음. 식재료의 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고, 소고기와 같은 고기류는 오히려 한국보다 싸기에 식재료를 구매하여, 간단하게 점심을 조리해먹고 오후 수업에 가도 충분한 시간이었음. 점심시간이 한 시간으로 꽤 짧기 때문에 여유로운 점심시간을 원한다면, 식권을 사서 교내 식당에서 사먹어도 좋음.
	관광지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owntown이 생각보다 크지 않음. 하루나 이틀이면 충분히 다 둘러볼 수 있음 - Float the Boise 튜브 타고 강을 떠다니는 활동이 있는데 강력하게 추천함. 보이시에서만 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함. Ann Morison 공원에서 출발지까지 가는 셔틀이 있지만, 여러 명아서 간다면 우버를 타는 것도 가격 차이가 얼마 나지 않음. 수요일에 가면 보트의 경우 10달러 정도 싸게 빌릴 수 있음. 가서 보트를 빌리는 것도 좋지만, 학교 REC CENTER에서도 보트를 빌릴 수 있음.(조금 더 싸긴 하나, 보트 짐을 다 싸고 강으로 이동해야함. 우버나 자차가 있다면 추천. 대여 시간 신경쓰지않고 놀 수 있음.) - Town Square(Apple Store-Vison Pro 체험 가능) - Maridian Villiage(우리나라 아울렛 빌리지 같은 느낌) - Boise Hawks 야구 경기 - Table Rock(일출이나 일몰 때 가서 사진 찍으면 굿) - 공원에서 많은 공연과 행사가 있으니 확인 - 보이시 사이트에서 매일매일 무슨 행사가 있는지 확인 가능
	기타 정보	- Winco Food, Walmart, Albertson 순으로 저렴함.
교육 정보	강의 구성	Reading&Writting, Communication, Intergrated Skill등 이렇게 3가지의 수업을 받았는데, 나머지는 좋았으나, Intergrated Skill 수업에서는 어떤 걸 배운 건지 잘 모르겠음. 그러나 현지에서 Tesol을 배우고 있는 현지 친구들을 만나 외국인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음.
	교육 내용	회화 능력, 글쓰기 실력, 말하기 실력 등을 배웠음. 수업 중 생활에 대한 다양한 것들을 질문하고 배울 수 있었고, 어려운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대화하고 질문할 수 있음.
	강사진	친절하고 관대함. 모르는 것이 있으면 자유롭게 질문하고 대답할 수 있음.
	정규수업 외 교육 정보	수요일마다 자유롭게 만나는 Tea&Talk 타임이 있었음.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활동이므로, 강제되는 활동은 아님
	기타 정보	

기타활동 정보	기타 활동 내용 및 비용	
	기타 정보	
프로그램 참가 결과	프로그램 성과	<p>다양한 외국 친구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었음.</p> <p>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한국인으로 이루어져있어서 한국에서 원어민 선생님들 모시고 수업 받는 기분이었음. 수업 자체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었다기보다는, 미국의 생활, 문화, 정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라면 추천함.</p> <p>수업 성취가 A,B,C,D,E로 나뉘어져있기는 하나, 출석만 잘하고 활동만 잘하여, F만 받지 않는다면, P/NP로 적용이 되는 한국의 성취에는 문제가 없음.</p>
	프로그램 장점	<p>짧게나마, 이 학교에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신분이 생김. 미국 입국하는데나 어떤 활동을 하는데에 있어, 불안하지않음.</p> <p>짜여진 시간표가 그렇게 어렵지않아 수업을 받으면서도 다른 활동을 계획하기 좋았음. 수업을 제외한 나머지의 시간은 자유로워 내가 원하는데로 계획하고 투어하고 여행할 수 있었음.</p>
	프로그램 개선 요구 사항	<p>일상에서 영어를 사용하고 싶어서 지원한 활동인 만큼, 외국인 학생들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음. 한 반에 외국인 학생들이 전혀 없는 반도 존재하였음.</p>
기타 사항	기타 참고사항	
	추후 참가자들을 위한 조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리 시설이 충분함으로, 조리가능한 냄비, 조리도구 등을 챙겨오면, 보다 편한 식사와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음. - 금요일은 수업이 일찍 끝나고, 월요일은 오전 수업이 없으므로, 주말을 잘 활용하여, 근처 다른 도시들을 여행할 수 있음. 미리 여행 계획을 짜고 준비하여, 비행기표를 미리 끊어서 들어오면 조금 더 싸게 여행할 수 있음. - 출발하기 전에 에타와 같은 플랫폼을 이용하여, 함께 가는 학우를 미리 알아가는 것을 추천함. 모르는 것을 미리 준비하고 공유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되었음. 미리 함께 가는 친구들을 구하여, 미리 친해지고, 함께 여행 계획을 세워 준비하는 것을 추천.

어학연수 프로그램 귀국 보고서

파견국가	미국	기관	BSU	파견기간	6/27~7/27
프로그램	BSU-Intensive English Program				

성명			
소속			
연락처			

프로그램 지원 사유	외국에 대한 관심이 생기던 차였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발전하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준비 과정	프로그램 등록 및 결제	공지방을 통해 안내해주신 계좌로 계좌이체했습니다.	
	비자, 항공권, 여행자 보험	ESTA비자, 항공권 개인구매-아시아나 공홈 이용, 여행자보험 앱 이용했습니다	
	기타 정보 (환전, 준비물 등)	현금, 카드(트래블 월렛) 환전 둘 다 하였고 카드를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파견대학 기본 정보	기관 정보	Boise State University 캠퍼스 내에서 수업하였고 총 3개의 건물을 이용했습니다.	
	교육 시설	깔끔하고 쾌적하며 에어컨도 나오고 공간도 넓어서 수업받기 편안한 장소입니다.	
	기숙사 시설	<p>2인실/4인실이 있으며 본인은 4인실을 사용했습니다. 1인 1실이었고 개인 침대와 책상이 있어 생활하기 편리했고 방에 주방이 있어 음식을 조리하기도 편했습니다. 주방이 없는 방은 공용주방을 이용하면 됩니다.</p> 	
	편의 시설	REC센터가 있는데 이 곳에는 헬스장, 클라이밍장, 수영장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UNION빌딩에는 볼링, 포켓볼을 할 수 있는 곳도 있으니 다양하게 즐겨보길 바랍니다.	
	기타 정보	전체적으로 다 깔끔하고 시설이 좋아서 생활하기 매우 좋은 편입니다. 특히 도서관에는 CD, LP도 들을 수 있는 곳이 있어 가보시면 좋습니다.	

지역·생활 정보	교통 여건 및 비용	학생증만 있으면 학교 버스 및 시내버스는 무료입니다. 오렌지버스는 다운타운으로 갈 수 있어서 평일에 자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버스를 타고 아울렛도 갈 수 있으니 무료로 자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식사 여건 및 비용	저는 학식을 이용하였고 뷔페식으로 고르는 재미도 있었고 돈을 지불하고 먹을만큼 맛도 있었습니다. 학식이 아니어도 기숙사에서 만들어 먹어도 됩니다. 식재료를 사서 직접 요리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관광지 정보	<p>걸어서 다운 타운에도 갈 수 있고, 우버로 치즈케이크팩토리, 타운스퀘어 혹은 버스타고 아울렛에 가거나 아울렛 근처에 사격장도 있습니다. 하이킹을 좋아하시다면 테이블락을 추천드립니다. 새벽 6~7시쯤 가면 해 뜨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몰시간에 가도 예쁠 것 같습니다.</p> <p>무엇보다 강에서 보트를 타는 플로팅은 사람들과 시간만 있다면 즐길 수 있으니 기회가 된다면 자주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p> <p>도시보다는 시골의 느낌이 납니다만 한적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입니다. 클럽, 바 등 밤에도 즐길 것들은 많으니 취향대로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p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Idaho State Capital -Table Rock </p>
	기타 정보	<p>다운타운에 맛있는 아이스크림 가게가 많습니다. 자신의 입맛에 맞게 최대한 많이 즐기는 것을 추천합니다.</p> <p>또한 중고샵도 많으니 이 곳에서 옷을 저렴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p>
교육 정보	강의 구성	Reading and Writing, Communication, Integrated Skill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부가적으로 Tea & Talk Time이 있습니다.
	교육 내용	RW수업에는 원서 읽기와 에세이 쓰기, Communication수업에서는 팀플 발표가 있었고 Integrated Skill은 BSU에 대한 홍보글 작성 등의 교육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강사진	강사진은 모두 원어민으로 구성되어 있고 친절하셔서 편안한 분위기로 수업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정규수업 외 교육 정보	Tea&Talk Time은 정규수업 외 시간이었고 참여는 선택입니다. 다른 나라의 학생들도 모여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기타 정보	월요일은 늦게 시작하고 금요일은 일찍 끝나는 시간표로 학생들을 배려해줍니다. 숙제가 좀 있는 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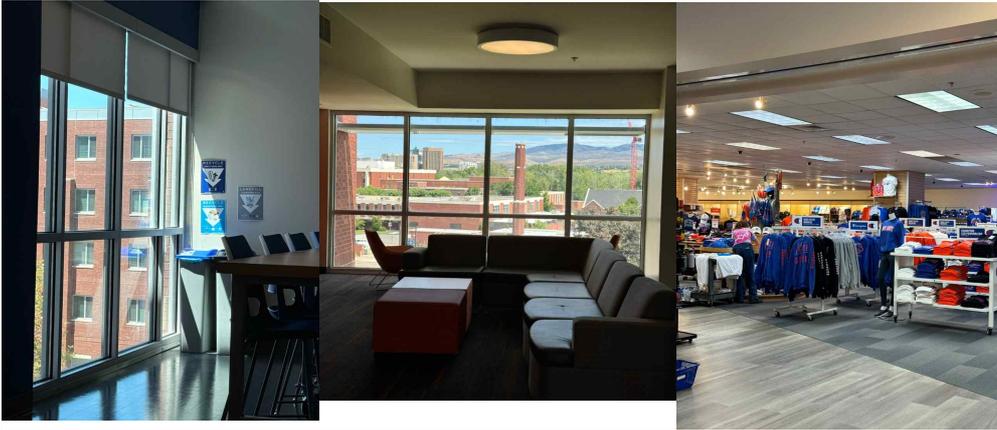
기타활동 정보	기타 활동 내용 및 비용	저희는 기간 중간에 독립기념일이 끼어있어 휴일이 길었습니다. 그 기간동안 다른 도시로 여행가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프로그램 중간에 여행을 가거나 종료 후 여행을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왕 미국에 간 김에 여러분들도 다른 곳들 여행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기타 정보	
프로그램 참가 결과	프로그램 성과	4주라는 짧은 기간이기에 영어를 전문적으로 배우기보다는 타국에 가서 다른 사람들과 생활하며 서로 어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과 대화하고 적응해 나감에 있어서 배움이 있었습니다. 외국인과의 대화에서 자신감 있게 일단 내뱉는 자세와 태도, 무엇이든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사람이 한층 성장할 수 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에 더하여 영어 듣기, 말하기 등은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장점	모국어가 아닌 영어를 통해 타인과 소통한다는 점과 타국, 특히 미국에서 안전하게 4주동안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장점입니다. 한국과는 전혀 다른 풍경과 인프라, 환경들이 있기에 색다른 경험을 통해 얻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프로그램 개선 요구 사항	IEP수업 시간에는 타대학교에서도 오신 분들이 많아 한국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외국인들도 있어 친해질 수 있지만, 여러 국적의 사람이 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타 사항	기타 참고사항	위 사항처럼 IEP수업에는 한국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나서서 외국인들과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IEP에 참여한 외국인들에게 먼저 대화를 시도해서 친밀감을 쌓아 수업 외에도 같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 클라이밍장에서 다른 학생에게 먼저 말을 걸어 친해지고, 따로 약속을 잡아 만나기도 했습니다. 수업 외에도 외국인들과 많이 대화할 수 있도록 먼저 용기를 낸다면 더 많은 경험과 배움을 얻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추후 참가자들을 위한 조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이시는 매우 건조한 지역입니다. 모자, 선크림 등은 가져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공원이 주변에 총 2곳이 있습니다. Julia Davis Park에서는 거의 매 주마다 행사가 있으니 챙겨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의 경우, 클래식 공연과 윙카 야외상영이 있었습니다. -AnnMorrison Park에서는 독립기념일 날 불꽃놀이를 했습니다. -정수기는 있지만 종이컵은 없으니 텀블러를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다운타운에 'BoDo CINEMA'라는 영화관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여기서 한 번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플로팅은 수요일에 더 저렴하니 이때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우버보다는 리프트가 더 저렴할 때가 많습니다. -주변에 중고샵이 많으니 옷을 최소한으로 가져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빨래도 세제만 있다면 무료이니 자주 세탁한다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스투시, 갭팩토리, 아마존 등 기숙사를 주소로 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데이 때 한국보다 더 저렴하거나 한국에서 구하기 힘들었던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학연수 프로그램 귀국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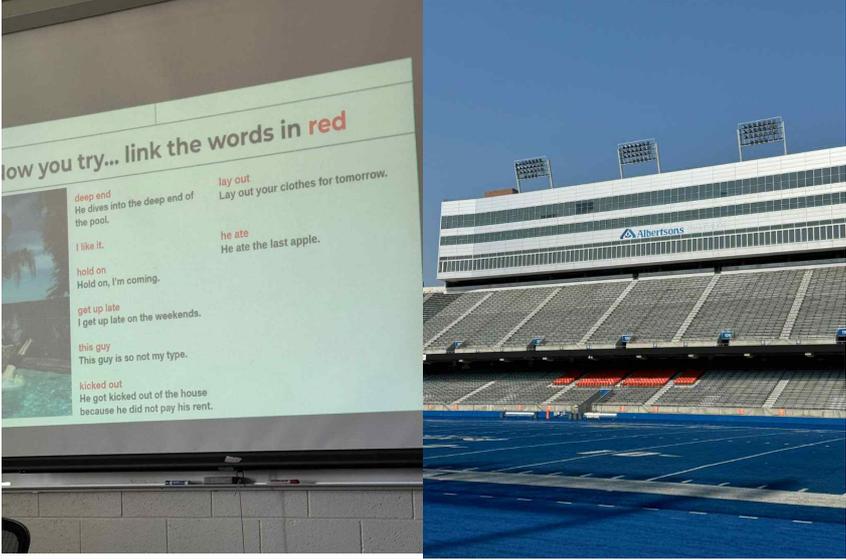
파견국가	미국	기관	Boise State University	파견기간	2024.06.26~2024.07.27
프로그램	Intensive English Program				

성명			
소속			
연락처			

프로그램 지원 사유	<p>첫 번째로 영어 말하기 능력과 영어 글쓰기 능력 향상을 주목표로 신청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외의 밝은 문화와 적은 스트레스로 살아가는 문화에 대해 배우고 싶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p> <p>세 번째로는 추후 교환학생, 대학원이나 박사 과정 등을 해외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 이에 대한 선 경험을 경험하고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p>		
프로그램 준비 과정	프로그램 등록 및 결제	<p>학비, 기숙사비, 식비 등 기본적인 등록 및 결제는 해외 파견 담당자분께서 총괄적인 금액과 세부적인 금액을 상세히 알려주십니다. 또한, 외환 결제와 원화 결제 계좌가 같이 있어 환전이나 복잡한 결제는 없었습니다.</p>	
	비자, 항공권, 여행자 보험	<p>미국 여행비자인 ESTA 비자로 신청해 파견을 갔다 왔습니다. 1주에 특정 시간 이내의 수업을 받으면 여행비자로도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는 법이 있어 큰 문제 없이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문법 수업과 같은 추가 수업을 들으려면 ESTA 비자 외에 다른 학생비자를 알아보심을 추천해 드립니다.</p>	
	기타 정보 (환전, 준비물 등)	<p>현금은 500달러로 가져갔고, 나머지는 해외 결제되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생활하였습니다. 현금 쓸 일이 많이 없어 200~300달러면 넉넉할 것 같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끝나고 여행할 분들은 비행기를 놓치거나 새 항공권을 공항에서 직접 구매할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모님이나 여분의 카드들을 추가로 챙겨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제 시스템이 가끔 오류가 나서 카드가 잘 안될 수도 있습니다.</p>	

	<p>기관 정보</p>	<p>Boise State University</p>
<p>파견대학 기본 정보</p>	<p>교육 시설</p>	<p>교육시설은 평범한 강의실이었고 한 반에 20~30명 정도 수강했습니다. 책상은 선생님을 보기 위함보다 주변 학생들과의 소통을 위해 원탁이나 모둠 형식으로 책상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또한, 강의실의 상태는 보통이었으나 4개의 수업 중 한 강의실은 신철인 듯 보였습니다.</p> 
	<p>기숙사 시설</p>	<p>기숙사 시설은 대체적으로 깔끔하고 좋았으나 첫 주 차에는 난방시설이 잘 안되어서 추웠습니다. 또한, 기숙사 방마다 주방이 있는 방이 있고, 없는 방이 있어서 없는 방은 불편을 감수하고 공용 주방을 이용해야 한다는 사실이 아쉬웠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낮 동안 직원이 상시 대기하고 있고, 저녁은 온라인으로 전화하면 직원이 로비로 내려오는 방식이라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해결이 가능했습니다.</p>
	<p>편의 시설</p>	<p>공용주방이나 휴게실, 스터디룸 등이 기숙사에 배치되어 있고, 학식을 먹는 장소도 기숙사에 붙어있어 편했습니다. 또한 기숙사 바로 건너편 건물엔 극장, 공연장, 스타벅스, 학교 기념품 샵, 볼링장, 당구장, 탁구장 등이 있어 편의시설은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p> 
<p>기타 정보</p>	<p>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은 기숙사 바로 앞에 큰 축구장이 있어, 축구하실 분은 축구화 정도 챙겨가심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직원을 불러야 할 경우가 많아 유심이나 이심을 꼭 전화되는 상품으로 구매하심도 추천드립니다.</p>	

지역·생활 정보	교통 여건 및 비용	학교 학생증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셔틀버스가 오후 7시까지 있고, 그 외엔 우버나 리프트 등의 해외 택시 어플을 사용해서 이동하였습니다. 택시비는 30분에 20\$대 정도 나왔습니다
	식사 여건 및 비용	학식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근처에서 장을 보거나 외식을 통해 끼니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교 내에도 스타벅스 등 여러 체인 음식점들이 있어 점심에도 식사하기 용이합니다. 장은 알버트선, 윈코 등이 있고, 학교에 푸트팬트리라는 공짜로 유통기한 임박 제품을 나누어주는 기부 활동도 있어 해당 가게들을 사용하시면 식비를 더욱 아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외식에 대한 정보도 수업 시간에 맛집에 대한 정보를 친절히 알려주셔서 선생님들에게 추천받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빅번, Fork 등 맛집을 자주 이용했습니다.
	관광지 정보	학교 수업시간에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소개해줍니다. 해당 관광정보를 보고 여행 계획을 짜심을 추천드립니다. 혹은 저와 같은 경우는 같은 나라의 다른지역을 여행갔다왔습니다. 국내선이라 비행기도 더욱 싸게 탈 수 있고, 입국심사 없이 다양한 지역을 여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추천드립니다.
	기타 정보	낮이 길어 여름에는 해가 15시간 떠있습니다. 따라서 선크림이나 자외선 차단제 그리고 선글라스 구비를 추천드리고 밤 9시에도 해가 떠있어서 일찍 주무시는 분은 안대도 추천드립니다. 또한, 안전한 지역이긴 하나 그래도 밤에 총소리가 들리거나 납치 시도가 있는 등 가끔은 위험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교육 정보	<p>강의 구성</p>	<p>읽기와 쓰기, 소통, 통합수업, 대화 수업 총 4개로 구성되어있습니다.</p>
	<p>교육 내용</p>	<p>읽기와 쓰기: 오페라의 유령에 관한 책을 읽고, 요약하고 단어를 정리하는 수업입니다. 또한, 주어진 글을 재진술하는 글이나 토픽을 주고 글을 쓰는 수업을 합니다.</p> <p>소통: 질문이 주어지고 해당 질문을 학생들과 묻고 답하는 수업입니다. 또한, 같은 글을 읽고 생각을 나누는 활동들도 진행합니다.</p> <p>통합수업: 학교 투어나 학교 홍보 인스타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 위주의 수업이며 매주 금요일 1회 진행됩니다.</p> <p>대화수업: 매주 수요일 1회 외국인들과 모여서 쟁점을 하거나 대화를하는 수업입니다.</p> 
	<p>강사진</p>	<p>Sharon: 가장 친절하신 선생님이셨고, 질문들도 친절하게 답변해 주십니다. 테니스채를 빌리고 싶은데 빌릴 장소를 못 찾자 테니스채도 빌려주셨고, 수업 방식도 학생이 주동적으로 움직이게 만드시고, 재밌는 수업을 하시며 항상 열심히 수업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p> <p>Aurora: 비교적 딱딱한 수업 방식과 운전면허 시험을 봐야 해서 수업을 일찍 끝내는 등의 열정적인 수업은 아니었으나 다양한 활동과 영화감상을 통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수업이었습니다.</p>
	<p>정규수업 외 교육 정보</p>	<p>학교 투어를 하는 수업에서 학교에서 풋볼 스타디움 견학이나 풋볼팀에 대한 설명하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또한, ESTA비자를 진행해 1주에 들 수 있는 수업 시간이 정해져 있어 문법 수업을 듣지 못했지만 문법 수업도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어 청강할 수 있습니다.</p>
	<p>기타 정보</p>	<p>다양한 활동이 많아 수업이 재밌고 능동적입니다. 또한, 수업들도 선생님들보다 학생 위주의 수업이라 더욱 활발한 수업 참여가 가능했고,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 활발한 수업참여 덕분에 빠른 실력향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p>
기타활동 정보	<p>기타 활동 내용 및 비용</p>	<p>보이시 주립대 뒤에 있는 보이시 강에서 보트를 타는 활동이 있습니다. 보트는 대여해야 하며, 보트의 종류에 따라 비용이 상이하지만 가장 싼 보트는 세금 제외 인당 18달러였습니다. 3시간 동안 탈 수 있고, 더운 날씨를 가진 보이시 특성상 재밌고 친구들과 즐기기 좋은 활동이었습니다.</p>
	<p>기타 정보</p>	<p>학생증을 보여주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보이시 아트 뮤지엄이 있습니다. 예술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한 번쯤 둘러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보이시 아트 뮤지엄 건너편에도 유료로 입장할 수 있는 미술관이 있으니 추천드립니다.</p> <p>추가로, 학교에서 메일로 행사나 보이시 지역 축제 정보들을 보내주고 학교 곳곳에서 파티가 자주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참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p>

프로그램 참가 결과	프로그램 성과	<p>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교환학생을 고민 중이던 저에게 1달간 짧게 미리 체험할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외국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더 넓은 사고방식을 배우며, 더 솔직한 성격을 가질 수 있게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과정을 통해 글쓰기 능력과 말하기 능력을 향상해 TOEFL 시험에 접목시킬 수 있습니다.</p> <p>그뿐만 아니라, 보이시 주립대학교 1기 파견생으로서 보이시 주립대학교에 대한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뿐만 아니라, 후에 파견될 학생들에게도 많은 양질의 정보를 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학연수 수료증을 발급받아 추후의 해외 관련 활동이나 진로에 연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p>
	프로그램 장점	<p>가장 큰 이점은 비용적인 측면이라 생각합니다. 학교 지원을 통해 해외 파견을 갔다 올 수 있다는 점과 협력 파견을 통해 절약된 학비로 어학연수를 갔다올 수 있다는 점에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해외의 창의적인 수업 방식과 능동적인 수업방식을 경험하며 한국의 수업방식과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수업의 개선점, 나의 수업 태도 개선 방안 등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p>
	프로그램 개선 요구 사항	<p>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고, 결과적으로 만족스럽게 다녀왔던 프로그램이지만 같은 대학교에서 같이 간 학생분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 보니 해외 파견에 가서 새로 적응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해외파견 전에 상명대 학생들과 오프라인 OT 활동 등의 활동을 추가해 미리 친해져가면 파견을가서 더욱 활동적으로 학생들이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제의 드립니다.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타 대학교 학생들 모두 OT 활동이 있어서 해외 파견 시의 여행계획도 미리 계획에서 왔던 모습을 보고 다음 기수 파견생들도 더욱 다양한 사람과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에 대한 설명이나 온라인 OT, 준비물 설명 등의 OT 과정도 매우 만족스러웠지만 오프라인 OT 활동이 있으면 더욱 알찬 어학연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의견 적어드립니다. 감사합니다.</p>

	<p>기타 참고사항</p>	<p>저희 기수 학생들은 보이지 주립대 선생님께서 한달짜리 유심 카드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갈 때 한달짜리 로밍을 하시기보단 일주일 정도만 해놓으시고 학교에서 유심을 제공해 주시면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학교에 기념품샵이 있고, 근처에 옷 가게도 많아서 옷이나 생필품은 최소한만 챙기시고 현지에서 기념품이나 필요한 물품을 사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귀국할 때 캐리어 무게 때문에 골치 아팠던 일이 있어 짐을 최소로 들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p> <p>추가로 연수 중 여행을 따로 계획 중이시라면 해당 국가의 공휴일이나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미리 비행기표를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경우 공휴일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2, 3일 전에 비행기표를 예약하다보니 비행기표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있었고, 뜻하지 않게 초과해서 비용을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p>
<p>기타 사항</p>	<p>추후 참가자들을 위한 조언</p>	<p>저는 사실 영어를 배운다는 목적도 컸지만, 영어권 사람들의 문화에 대해 배우자는 의지가 더욱 컸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비록 내성적인 성격이지만 해당 연수를 거치면서 외국에서는 외향적인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한 번뿐인 소중한 경험이니 연수를 가게 되신다면 영어가 익숙치 않더라도 용기 내서 외국인들과 말걸어보고 같이 운동하자고 하거나 산책하자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외국인들과 같이 활동하면서 외국 문화권 사람들은 정말 솔직하다고 느꼈고, 배울 점이 많은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또한, 다들 친절해서 아마 적극적으로 같이 하자고 하면 다들 받아주시고 좋아실거라 생각이됩니다. 영어의 실력향상도 있지만 더욱 다양한 사람과 더욱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스스로를 다시 되돌아볼 수 있고, 한국에서의 저, 한국에서의 삶과도 비교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따라서 영어 실력향상도 중요하지만 연수를 통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 보는 것도 보람찬 해외연수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아 글 적어보았습니다.</p> <p>그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seungjae1324@naver.com으로 메일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p>

어학연수 프로그램 귀국 보고서

파견국가	미국 Idaho, USA	기관	Boise state university	파견기간	2024.06.26~2024.07.27 2024.June.26.~2024.July.27.(4주)
프로그램	Intensive English Program				

성명			
소속			
연락처			

프로그램 지원 사유	영어 실력 향상 및 외국인과의 문화교류 및 자아를 탐색하기 위해서 지원하였습니다. 더불어 미국간호사를 고민하던 중, 엔클렉스 시험을 준비해야할지 말지 결정하기 위한 첫 걸음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준비 과정	프로그램 등록 및 결제	스스로 알바비로 번 돈으로 결제하였으며, 프로그램 입학허가서 및 여러 절차는 학교 소개에 따라 공지사항과 단톡방을 읽고 진행하였습니다.	
	비자, 항공권, 여행자 보험	학교 측에서 여행자 보험을 소개해주셔서 가입하였고, 항공권은 스스로 구매하였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150만원, 대한항공 120만원으로 항공사로 직접 구매하였습니다.	
	기타 정보 (환전, 준비물 등)	현금은 공항에서 환전하였으며, 실제로는 쓰임이 없었습니다. 가슴기를 챙기라고 말씀하신 오티 내용에 따라 가슴기를 챙겼고, 코로나 자가키트를 사갔지만 실제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파견대학 기본 정보	기관 정보	보이시주립대학교(BSU)는 미국 아이다호주 보이시에 있는 주립 종합대학교이다.	
	교육 시설	아침9시부터 늦어도 낮3시에는 수업이 끝납니다. 하루 3시간 수업할 때도 많으며, 어학연수로 수업을 듣지만 학생 대부분 많이 놀기도 합니다.	
	기숙사 시설	2인 1실, 4인 1실 둘 중 하나로 랜덤 배정됩니다. 에어컨은 중앙제어라 스스로 끌 수 없어 매우 추우니 따뜻한 걸옷을 많이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방안에 키친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후자의 경우 공용키친을 써야합니다.	
	편의 시설	1층 데스크탑은 아침9시부터 밤8시까지 운영하지만, 위급상황시 전화하면 문제 해결해주십니다.	
	기타 정보	볼링장 공짜니 많이 활용하세요. 라임자전거는 생각보다 비싸니 아예 한달 간 빌리거나 타지 않는 거 추천합니다.	

지역·생활 정보	교통 여건 및 비용	대한항공 입국 120만원, 아시아나 출국 150만원, 중간 LA 비행기 값 왕복 90만원
	식사 여건 및 비용	부엌이 있어 직접 요리해먹을 수 있었습니다. 학식은 1끼당 2만원으로 점심만 식권을 구매하거나 당일에 드시고 싶으신 날만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인앤아웃 세트는 15,000원 정도입니다.
	관광지 정보	LA-pink wall, pink hotdog, Getty museum, Griffith Observatory, long beach Boise- Rec center, capital city public market, the boise farmers market, library, julia davis park
	기타 정보	햄버거로는 Five guys, inandout burger, chick fill-A 추천드립니다.
교육 정보	강의 구성	Coummunication, reading and writing, integrated skills&experiential learning, tea time(optional)
	교육 내용	Coummunication: 마쉬멜로우 탑쌓기, 30일 간 챌린지 발표, 팀 활동 reading and writing: 오페라의 유령 원서로 읽고 내용 정리하기, 칠판 속 단어 유의어 및 반의어 정리하기, 팀 토론 integrated skills&experiential learning: 팀활동, 팀토론, boise 여행 계획 짜기, 발표
	강사진	Stepany, linda
	정규수업 외 교육 정보	tea time: 새 친구 사귀기, 영화 이름 맞추는 게임 Goodbye & certificate ceremony: 졸업장 받으며 다같이 사진찍기
	기타 정보	독립기념일 7월 4일: 불꽃쇼 관람
기타활동 정보	기타 활동 내용 및 비용	Rec center(헬스장): 클라이밍 무료 체험 가능, 한 달 간 6만원 Boise art museum: 1만원 Zoo: 목요일은 저렴하게 8달러지만 사실상 동물이 별로 없어서 비추천합니다. 기념품샵: 저렴하게 구매 가능하니 많이 구매하세요. 반팔티 2만원입니다.
	기타 정보	옷 많이 가져가지 마세요.. 예쁜 옷들 미국에 많으니 미국에서 사세요. 소고기 저렴하니 냄비, 프라이팬 모두 구매해서 요리해드시는 거 추천합니다.

	<p>프로그램 성과</p>	<p>영어 실력 향상 및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부분에서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더불어 학교에서 보내준 어학연수 특성상 안전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습니다. 다운타운(시내)가 가깝고 여러 가지 놀거리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p>
<p>프로그램 참가 결과</p>	<p>프로그램 장점</p>	<p>상명대 학생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안전하게 타대학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수업이 적어 미국을 즐기며 여행할 시간도 많아서 좋았습니다.</p>
	<p>프로그램 개선 요구 사항</p>	<p>미국 독립기념일이 7월4일이라 이 때 수업이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LA 항공비를 조금 더 저렴하게 결제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웠습니다. 함께 있었던 부경대 친구들은 학교측에서 항공권, 비자, 유심 등등 모든 걸 준비해주셨고, 독립기념일 날짜까지 미리 제공받아 LA 티켓도 저희보다 훨씬 저렴하게 미리 살 수 있었습니다. 상명대는 혼자 항공권 구매 및 탑승이 이루어졌는데 정보적으로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더불어 학교 측에서 개인정보를 우려한 탓인지 오픈채팅방으로 공지사항을 알려주셨는데, 오픈채팅 특성상 다른 친구들에게 연락을 주고 받을 길이 없어 함께 정보를 공유하기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p>
	<p>기타 참고사항</p>	<p>미국은 환기가 잘 안되는 시스템이니 먼지가 매우 많습니다. 마스크를 많이 가져가고 감기약도 종류별로 여러 개 구비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유심이나 이심 날짜 체크까지 신경쓰며 뭐든지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해가 밤9시에 지고, 아침6시에 뜨며 매우 낮이 길다. 햇빛이 강하니 양산을 준비해가세요.</p>
<p>기타 사항</p>	<p>추후 참가자들을 위한 조언</p>	<p>최대한 공지사항에 적힌 다른 친구들과 연락하여 함께 움직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항공도 혼자 탑승보다는 다다익선입니다. 캐리어는 무조건 큰 것으로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리며 매우 건조하니 가습기와 몸에 바를 로션을 가져가도록 하세요. 돈을 아무리 아끼려고 노력하더라도 미국 물가는 너무 비싸서 감당할 수 없으니 항공권이라도 미리 저렴하게 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총 1000만원을 지출했고 후에 300만원을 학교에서 환급받을 예정입니다. 중간에 여행 다니는 것보단, 연수가 끝난 뒤 여행하는 것이 어학연수에 집중할 수 있어서 더 좋을 것입니다.</p>

어학연수 프로그램 귀국 보고서

파견국가	미국	기관	보이시 주립대학교	파견기간	24.06.27~24.07.26
프로그램	보이시 주립대학교 IEP 프로그램				

성명			
소속			
연락처			

프로그램 지원 사유	영어회화 실력향상, 해외거주경험, 미국문화경험		
프로그램 준비 과정	프로그램 등록 및 결제	단체카톡방에서 안내 받는대로 진행	
	비자, 항공권, 여행자 보험	비자 : 미국 ESTA 비자 개별 신청 항공권 : 개별 구매 여행자보험 : 개별 신청 (어학연수 담당자님이 추천해주신 업체)	
	기타 정보 (환전, 준비물 등)	환전 : 트래블로그, 트래블 월렛 주로 이용, 현금은 필요할 때 인출해서 사용	
파견대학 기본 정보	기관 정보	Boise State University	
	교육 시설	Intensive English Program	
	기숙사 시설	Honors College and Sawtooth Hall	
	편의 시설	보이시 레크레이션센터 (한달에 45달러, 수영, 농구, 헬스, 실내암벽등반 (리드, 볼더링), 스쿼시, 탁구, 배드민턴, 배구, 미식축구, 러닝트랙, 고무보트렌트) *강추* Student Union building (학교기념품샵, 편의점, 학생식당, 볼링장, 당구장, 탁구장, 각종 홀, 스타벅스, 칩필레, 서브웨이)	
	기타 정보		

지역·생활 정보	교통 여건 및 비용	학생증에 학교순환셔틀버스(평일), 시내버스 무료이용 가능, 멀리가는 경우 우버,리프트 이용, Lime 공유전동킥보드, 학교자전거 한달렌트 (한달에 85달러 ..? 비추)
	식사 여건 및 비용	근처 대형마트에서 장봐서 기숙사에서 직접 조리, 기숙사 식당, 학생식당 , 외식
	관광지 정보	플로팅(고무보트, 튜브 빌려서 보이시강에서 2시간가량 떠내려오는 보이시최고액티비티) 보거스바신(스키리조트, 여름엔 루지, 사계절썰매, MTB파크) 타운스퀘어 (칼하트, 나이키팩토리, 레고, 콜롬비아, 애플스토어 등이 있는 아울렛) 테이블 락 크로스 (1시간가량 하이킹 새벽출발해서 동트는거 보기, 사진맛집)
	기타 정보	실내, 실외 사격장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Independence indoor shooting 추천 직원착하고 총 다 만져보게해줍니다. 실외는 업체랑 컨택 잘 해보시길 시간없어서 못해봤습니다.
교육 정보	강의 구성	정규 : Reading and Writing 수업 , Communication 수업, Intergrated Skill 수업 선택 : Tea and Talk , 가끔 외부활동 (시내보물찾기)
	교육 내용	내셔널지오그래픽에서 쓴 책 사용. 그러나 책 위주 수업이 아니라 책에 있는 주제로 본인 생각을 말해보거나 정리해서 글로 써보기. communication 수업은 수업때마다 말 많이해서 입아플 정도로 같은반 인원들이랑 영어로 이야기를 많이 함. 주제를 정해주거나 자유주제로 이야기함. 다 같이 일어나서 돌아다니며 많은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짐. 선생님도 같이 껴서 대화가 원활하게 이어지도록 도움을 줌. 마지막에 조별발표하나 있는데 전혀부담 x. reading and writing 수업은 warm-up 글쓰기로 수업 시작하고 책에있는 지문 같이 읽어보고 딸린 문제 풀어봄. 수업내내 지문만 읽다가 끝나는건 아니고 게임도 하면서 즐겁게 수업이 진행됨 (모든수업이 한국 학교, 학원처럼 딱딱하게 진도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게임도 하고 재미있게 힘들지 않게 수업이 진행됨. 세 수업중에는 이 수업이 가장 힘든편.) Intergrated skill 수업은 정규수업이지만 개인적으로 영양가는 크게 없는 수업. 게임도 하고 마지막엔 간단한 발표도 하고 노는느낌이 강한 수업
	강사진	Sharon (communication 수업, Intergrated skill 수업) - *최고* Hannah (reading and writing 수업)
	정규수업 외 교육 정보	Tea and Talk 매주 수요일 오후 음료를 먹으며 간단하게 게임 하면서 노는 수업 선택사항이라 안하고 놀러가는 사람도 많음. 외국인들은 대부분 오니 가면 외국인들이랑 친해질 기회가 조금 더 생김.
	기타 정보	
기타활동 정보	기타 활동 내용 및 비용	
	기타 정보	

프로그램 참가 결과	프로그램 성과	<p>안전하게 학교를 끼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한달 가량 경험해봤다는거에 큰 의의를 둬.</p> <p>한국에서 영어를 더 체계적이고 쉽게 잘 배울 수 있지만 미국에 가서 직접 미국의 문화를 온몸으로 느끼며 더 넓은 세상 이러한 세상도 있다는 것을 알게됨.</p> <p>본인은 외국인, 미국인들과 대화를 많이 시도했고 실제로 외국인들과 영어로 대화하는 것에 두려움을 많이 사라짐.</p>
	프로그램 장점	<p>안전하게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미국을 경험할수있는게 가장 큰 장점. 그냥 여행으로 오는것보단 더 답하게 미국을 느낄수 있다고 생각함.</p>
	프로그램 개선 요구 사항	<p>장학금 지원을 더 많이 해주면 좋을 거 같음.</p>
기타 사항	기타 참고사항	<p>레크레이션센터 무조건 등록해서 운동 , 공부 , 여행 다 챙기는 갓생 살아보길 바람. 수영을 할 수 있다면 수영복은 꼭 챙기기</p> <p>여름에 간다면 플로팅은 필수니 한국에서 휴대폰 방수팩, 방수되는 가방 챙기기</p> <p>장시간 비행이니 쿠팡에서 괜찮은 목배개 싸게 하나 사기(본인 너무 불편해서 삼)</p> <p>라스베가스, LA 주말에 다녀오거나 프로그램 전후로 여행 다녀오기</p> <p>학교에서 어학연수 참가자들끼리 커넥션을 따로 안만들어주니 능동적으로 카톡방 하나 파서 정보공유, 여행도 뜻맞는 사람들끼리 계획짜서 la 라스베가스 다녀와도 좋음</p> <p>현금 많이 안챙겨가도됨 환율 쌀 때 인출 조금씩 해놔도 됨. 트래블로그 트래블 월렛도 하고 네이버에서 나온 네이버페이 머니카드 완전 추천!!! 적립 엄청 돼서 다른사람들이랑 같이 뭐 먹은 경우 결제 본인이 하면 적립 엄청 할수 있음. 현금 환급이라 돈 엄청 아낄수 있을 듯.</p>
	추후 참가자들을 위한 조언	<p>이곳에서의 프로그램은 놀면서 여행하면서 미국문화 체험이 주고 약간의 영어공부가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됨.</p> <p>한달이라는 시간안에 급격한 영어실력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곳에서 영어가 중요하다는 것만 알아간다는 생각으로 오면 좋을거 같다고 생각함.</p> <p>영어실력 향상만을 목적으로 어학연수를 계획한다면 한국에서 배우는 것이 좋아보임</p>

어학연수 프로그램 귀국 보고서

파견국가	미국	기관		파견기간	2024.06.26~2024.07.27
프로그램	하계 단기 어학연수				

성명			
소속			
연락처			

프로그램 지원 사유	영어 실력 향상		
프로그램 준비 과정	프로그램 등록 및 결제	담당 기관에서 등록 및 결제를 도와줘 쉽게 할 수 있었음.	
	비자, 항공권, 여 행사 보험	비자와 보험은 기관에서 링크를 보내줘서 그대로 이행했고 항공권은 날짜에 맞춰 구입함.	
	기타 정보 (환전, 준비물 등)	해외에서도 결제가 되는 카드와 900달러 정도 환전해 감.	
파견대학 기본 정보	기관 정보	아이다호의 보이시에 있는 주립대학교임.	
	교육 시설	IEP(intensive english program)라는 한달짜리 수업을 들으며 한국인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들었다. 강의실들은 다 기숙사에서 가까워 수업 시작 10분 전에 나가도 충분했다.	
	기숙사 시설	'sawtooth hall'이라는 곳에서 지냈으며 4인1실 혹은 2인 1실이다. 각방을 쓸 수 있으며 주방과 거실만 공유하는 형태이다. 주방의 유무는 랜덤이지만 기숙사 내에 공동 주방이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편의 시설	기숙사 건물 내에 세탁실, 주방, 학식당 등이 있다. 학생회관에도 학식당, 스타벅스 등이 있다. 학생회관의 학식당이 메뉴가 더 다양해 거기서 먹는 것을 추천한다.	
	기타 정보	셔틀 버스를 타면 다운타운이나 마트를 무료로 갈 수 있으니 셔틀 버스를 잘 애용하길 바란다. 버스 정류장에 있는 큐알코드를 찍으면 실시간 버스 운행 정보를 볼 수 있다.	

지역·생활 정보	교통 여건 및 비용	대학교 내의 셔틀 버스와 일반 버스가 있다. 두 버스 다 무료로 탈 수있다. 버스가 없는 날에는 우버를 탔다. 우버 비용이 크니 최대한 여러명과 나눠 타는게 합리적이다.
	식사 여건 및 비용	일반 음식점에서의 외식 비용은 팁과 세금을 다 합쳐 1인당 약 5만원 정도 나온다. 패스트푸드점에서는 약 2만원 이하가 나온다. 웬만하면 마트에서 식재료를 사 주방에서 만들어 먹는 것을 추천한다.
	관광지 정보	수업이 끝나면 다운타운을 가거나 보이시 강에서 플로팅이라는 액티비티를 했다. 주말에는 보이시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으니 로스앤젤레스나 라스베가스로 여행 가는 것을 추천한다.
	기타 정보	지역 자체가 매우 건조하며 해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로션과 선크림을 자주 발라야 한다. 그리고 보이시는 다른 도시들에 비해 안전해서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다.
교육 정보	강의 구성	Reading and writing, communication, integreted skill..?(잘 기억 안남)이라는 세 가지 수업을 듣는다. 크게 어려운 활동은 안한다.
	교육 내용	Rw수업에서는 주로 서론 본론 결론을 나눠 글을 쓰고 스피치를 한다. Cm수업에서는 영어로 다른 친구들과 대화해야 하는 활동을 자주 하며 마지막 수업은 금요일 오전에만 듣는 수업으로 마지막 시간에 보이시에 대해 발표하는 활동을 한다.
	강사진	각 수업마다 선생님이 한 분씩 계신다. 물론 레벨마다 선생님은 다르다.
	정규수업 외 교육 정보	optional로 수요일과 금요일에 활동이 있다. 다운타운에서 미션을 완료해야 하는 활동도 있고 강의실에서 대화하는 활동도 있다. 가급적이면 참여하는 것을 추천한다.
	기타 정보	
기타활동 정보	기타 활동 내용 및 비용	학비로 약 300~400만원 정도를 지불하고 왕복 비행기값으로는 보통 200만원 정도가 나온다. 그곳에서의 생활비는 100만원 이상이 나왔다. 필자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종료 후 1a로 여행을 갔다. 모든 비용을 합치면 대략 1000만원 정도가 된다.
	기타 정보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 바로 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도 마음이 바뀔 수 있으니 된다면 무료 취소, 변경이 가능한 비행기표를 끊는 것을 추천한다.

프로그램 참가 결과	프로그램 성과	처음 미국에 도착했을 때에는 공항에서 질문에 답을 못할 정도로 두려움이 컸지만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 실력이 크게 향상되기보다는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 것 같다.
	프로그램 장점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친해질 수 있다. 또한 학교가 매우 크고 학교에서 지원되는 것이 많아 견문을 넓히는 데에는 좋은 것 같다.
	프로그램 개선 요구 사항	미국의 물가가 생각보다 비싸 돈이 매우 많이 들어 지원금이 더 커졌으면 좋겠다.
기타 사항	기타 참고사항	현지에서 간혹 카드가 안되는 곳이 있어 현금을 쓰는 일이 많다. 미국의 atm기기는 수수료와 세금을 부과하니 환전을 넉넉히 해야 한다.
	추후 참가자들을 위한 조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요일 수업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 그때를 틈타 다른 지역으로 여행 가는 것을 추천한다. ● 한국에서 공휴일을 미리 찾아 그때 뭘 할지 계획하는 것을 추천한다. ● 학교 내에 음식 펜트리가 있다. 이 곳에서는 각종 식재료와 샴푸, 면도기 등을 무료로 가져갈 수 있으니 펜트리가 여는 날에 오픈런을 하는 것이 좋다. ● 텀블러를 챙겨오기보다는 현지에서 스타벅스나 스탠리 텀블러를 사는 것이 좋다. ● 그곳에서 짐이 늘어나는 경우가 다반사이니 큰 캐리어 하나만 챙기는 것보다 캐리어 두개를 챙기는 것이 좋다. ● 마트 중에서는 winco가 제일 싸고 가까우니 웬만하면 그곳에서 식재료를 사는 것을 추천한다. ● 식당에서 보통 15~18%의 팁을 낸다 ● 팁을 낼 때 옵션에 15나 18이 없다면 custom을 눌러 직접 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 옷을 걸 수 있는 옷장이 있으니 거기서 쓰고 버릴 수 있는 일회용 옷걸이를 많이 챙겨오면 좋다.

어학연수 프로그램 귀국 보고서

파견국가	미국	기관	Boise state university	파견기간	2024.06.26. ~ 2024.07.27
프로그램	Intensive English Program				

성명			
소속			
연락처			

프로그램 지원 사유	짧은 기간동안 미국에서 생활하며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었고, 다양한 외국인들과 소통하며 영어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프로그램 준비 과정	프로그램 등록 및 결제	프로그램 담당자분이 단체 특방을 통해 납기 금액 및 납기일을 알려주십니다. 저희는 출국 1주일 전에 공지해주셔서, 그 때 납부했습니다.	
	비자, 항공권, 여행자 보험	비자, 항공권, 여행자 보험 모두 각자 신청합니다. 비자는 ESTA 비자로 약 2-3만원 정도의 금액이고, 항공권은 프로그램 끝나고 개인적인 여행 일정으로 편도로 끊어서 아시아나 인천-시애틀/시애틀-보이시로 130만원(편도)에 출국 2개월 전에 구매했습니다. 여행자 보험은 삼성화재 여행자 보험 4-5만원대로 출국 1주일 전에 신청했습니다.	
	기타 정보 (환전, 준비물 등)	<p>저는 29인치 캐리어 1개만 챙겼기 때문에 공간이 많이 부족했는데 가능하면 캐리어 26-28인치 정도 2개를 가져가시는 거 추천 드립니다. 여행할 때 불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짐 이동할 때는 우버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전혀 불편한 점이 없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기념품이나 옷을 사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출국 캐리어는 공간을 많이 남겨두고 가면 올 때 기념품을 많이 사도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부족해서 미국에서 기내용 캐리어 하나 구매했습니다..ㅠ) 환전은 전혀 안했고, 트레블 로그에 계속 충전하면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50달러 정도는 환전 해가는 거 추천 드립니다! 학교 근처에 winco 라는 마트가 있는데 주변 마트들 중 가격이 싼 마트라 자주 들리게 됩니다. 거기는 한국 신용/체크카드/트레블카드 등등 다 안 되고 현금 결제만 가능했습니다. 준비물은 기본적으로 챙기실 건 다 챙기시되 학교 근처에 빈티지 옷 가게도 있고 학교 굿즈 옷들도 정말 많이 있어서 한국에서 덜 챙겨오고 여기서 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건은 3장 챙겨갔는데 입실할 때 큰 샤워타월+핸드 타월 하나씩 줘서 부지런히 빨래하면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불도 기숙사에서 주긴 주는데 이불보단 담요에 가까워서 추위를 정말 많이 타시는 분이라면 버릴 생각하시고 두꺼운 담요 챙겨오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추위를 너무 많이 탔는데 룸메이트들이 에어컨 온도를 항상 낮게 틀어서 데스크에서 이불(같은 그물망) 3-4개를 받아서 덮어도 너무 추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 반입 물품이 걱정돼서 음식을 하나도 안 가져갔는데 캐리어 무게만 괜찮으면 햄반, 참치, 고추장 등등 많이 많이 챙겨가서 드세요.. 생각보다 요리할 때 많이 찾게 됩니다.</p>	

파견대학 기본 정보	기관 정보	Boise state university에서 하는 I.E.P이고,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몇몇 건물에서 수업을 합니다.
	교육 시설	학교 건물이 너무 좋고, 신축 건물들이기 때문에 깨끗해서 좋았습니다. 자기가 속한 반에 따라 다르지만 3-4개 건물에서 수업을 하는데 모든 건물이 다 깔끔합니다.
	기숙사 시설	기숙사는 정말 너무 좋습니다. 초반에 정해진 기숙사보다 가격이 더 낮은 기숙사로 변경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숙사 시설이 너무 좋고 방마다 구성이 조금씩 다릅니다. 2/4인룸으로 나뉘어져 있고, 방에 거실 및 주방이 있는 방과 없는 방이 있는데 배정은 랜덤입니다. 주방이 없는 방은 대체적으로 공용 주방이랑 가까운 쪽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용주방도 굉장히 깔끔하고 좋은 시설이라 다같이 먹거나 사용할 때 좋았습니다. 1층에 세탁실이 있는데 세탁 및 건조기 모두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층마다 스터디룸 과 공용 공간들이 있어 가끔씩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정수기 물들이 수돗물 맛이 많이 나는데 기숙사 층마다 있는 정수기는 수돗물 맛이 안 나서 기숙사 정수기에서 주로 텀블러에 많이 담아서 마셨습니다. 4인실 기준 문 열면 크게 거실+주방이 있고 양 옆으로 방 2개씩 있습니다. 1인 1방이고, 세면대도 크게 있는데 1인 1세면대라 한 공간 당 세면대가 2개씩 총 4개 있습니다.
	편의 시설	학교 자체가 편의 시설이 너무 좋게 되어 있어 생활할 때 불편한 점이 전혀 없습니다. 유니온 건물에 스타벅스(추천/ 방학에는 2시까지 영업임), 대부분 많은 식당이 있고, 편의점도 있지만 조금 비싼 감이 있습니다. 학교 굿즈 샵(엄청 큼)도 유니온 건물에 있어 구경하고 구매하기 좋은, 소장하고싶은 물건들이 엄청 많습니다!
	기타 정보	저는 운이 좋게도 학교를 다니고 있는 미국인 친구 2명과 룸메이트가 되었는데, 방에 거실 및 주방이 있고 이미 친구들이 오래 살아서 많은 식기와 제품 및 가구들이 있어 친구들이 많이 빌려줘서 생활하기 매우 편리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같은 프로그램 사람들과 룸메이트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달러트리 등 마트에서 식기류나 프라이팬 등 구매하시면 됩니다.

지역·생활 정보	교통 여건 및 비용	보이시주립대 학생이면 학교 셔틀 및 시내 버스가 모두 무료입니다. 학교 셔틀은 대학 사이트에 셔틀 실시간 정보 볼 수 있는 창이 있어서 보면서 타면 되고, 다운타운도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시내 버스는 학생증만 보여주고 타면 되고, 이 버스도 타운스퀘어, 메리디언 등 거리가 있는 쇼핑물까지도 다 갑니다. 교통비는 초반에 원코같은 마트에서 많이 장 볼 때 무거워서 우버 타는 것 말고는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니다. 원코도 기숙사에서 걸어서 15-20분에 가는 경치가 좋아서 후반부에는 많이 걸어갔다 왔습니니다.
	식사 여건 및 비용	식은는 프로그램 전에 학교 측에서 메일로 밀 플랜 구매 정보를 알려주는데, 저는 점심만 구매했고 1번에 14달러씩 열 몇 번 먹어서 총 금액을 한번에 알려준 사이트로 지불했습니다. 오전, 오후 수업 있는 날 점심 텀이 좀 짧아서 점심은 구매하는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엄청 만족도가 높은 뷔페식(?)이어서 매일 매일 잘 먹었습니다. 프로그램 후반부까지 기숙사 건물 1층에 있는 south fork에서만 먹었는데, 유니온 건물에 있는 곳에서도 점심을 합니다.(몰랐음) 기숙사 건물 식당은 좀 더 한국인에게 맞춰져서 밥 같은 게 많이 나오는데, 마지막쯤에 유니온 식당 가보니 거기는 미국인 맞춤 음식들이 많아서 매일 먹으면 좀 힘들 것 같지만 몇 번 먹으러 가면 너무 만족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두 식당 모두 샐러드/요리/디저트/음료 등 많이 있습니다.
	관광지 정보	보이시에 큰 관광 명소는 없지만, 보이시 강에 보트 타러 많이 가고, 타운스퀘어, 메리디언, 공원 등 구경하러 갑니다. 다운타운이 크지 않아서 몇 번 가서 구경하면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구경보단 식당이나 펍 같은 곳 정해가서 노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정보	다운타운 추천 맛집: nara ramen, the stil icecream(3?4번?또간집), tupelo honey 주변 마트: winco(걸어서 20분), albertsons(걸어서 15분, 브로드웨이 쪽/그린 셔틀 타고 갈 수도 있음), 달러트리(우버 이용) 다운타운도 맘 먹으면 걸어갈 수 있습니다. 가는 길에 공원, 로즈가든, 뮤지엄 등 많이 거쳐서 구경하기도 좋아요.

교육 정보	강의 구성	reading&writing, communication, integrated skill 3가지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 내용	RW 수업에선 reading 책을 사용해서 수업하고, 반마다 다르지만 제가 속한 반은 오페라의 유령 책도 함께 공부했습니다. 수업 시간마다 새로운 게임을 진행해서 나름 재미있었습니다. communication 수업에서는 영어로 소통하면서 게임도 즐기고, 후반에는 프로젝트처럼 팀을 짜서 샤크탱크라는 발표도 진행했습니다. integrated skill 수업이 가장 재미있었는데 학교 투어도 하고, 다양한 게임도 하고, 같은 반에 있는 학생들과 선생님과 소통하는 게 가장 컸던 수업이었습니다.
	강사진	순서대로 오로라, 프란체스카(마지막 주는 프란체스카 휴가로 인해 선생님이 변경 되었는데 이 점은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샤론이었습니다.
	정규수업 외 교육 정보	오펜셜 클래스가 있는데, 선택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다운타운에서 탐방하면서 미션 수행하는 것도 있었는데 1시간 정도동안 재미있었고 상품도 받아서 좋았습니다. tea&talk도 있었지만 항상 점심 시간이 부족해서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기타 정보	한 달이라는 시간이 아무래도 언어를 배우기엔 적은 시간이다보니 수업의 질이 정말 높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반에 다른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수업의 난이도가 크게 중요한 것 같진 않습니다. 또 반마다 한국인 비율이 높은 반, 외국인 친구들이 많은 반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운) 외국인 친구들이랑 같은 반이 된다면 최대한 그 시간에 많이 대화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숙제는 어렵지 않지만 매일 매일 과목마다 1-2개씩 있어서 미루면 피곤합니다.. 그리고 모든 수업마다 마지막 주에 ppt 발표가 있습니다. 근데 크게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됩니다.
기타활동 정보	기타 활동 내용 및 비용	한 달동안 필요한 물건 구매하고, 장 보면 돈을 꽤나 쓰기 때문에 150만원 이상은 생각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환율 보면서 틈틈이 충전해서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 이상으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외식 한 번하면 15-30달러 사이 정도 나옵니다. 기숙사에서든 만들어서 먹고, 잘 조절하면 괜찮습니다. 또한 학교에 렉센터라고 헬스장이 있는데 정말 크고 수영장도 있고 좋기 때문에 등록 추천드립니다! 한 달에 47달러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기타 정보	학교에 팬트리가 있는데, ILC 건물 옆에 있습니다. 마트에서 기한이 얼마 안 남은 식재료들을 기부(?)하는 곳인데 고기, 우유, 계란, 통조림, 야채, 과일, 빵, 생활용품(화장실 휴지, 샴푸린스 등) 많아서 거기서만 가져와도 식재료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저는 존재를 2-3주차 쯤 알아서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맛이 간 음식들도 있으니 잘 선별해서 고르시길 바랍니다.. 무료입니다. 렉센터 등록하셔서 수영하실거면 미리 한국에서 수영복 챙겨 가지거나, 브로드웨이 쪽 엠타운 빈티지 샵에서 래쉬가드 비슷한 거 사시면 됩니다. 옷걸이는 가져가지 마시고, 달러트리에 1달러 6-7개 정도 파니까 거기서 구매하세요! 방 안에 옷장(?)같은 벽 안에 있는 공간이 있는데 수납할 공간이 엄청 충분합니다.

프로그램 참가 결과	프로그램 성과	개인적으로 언어가 늘었다기 보다는 알고있는 표현을 직접 외국인이랑 대화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성과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외국인이랑 마주하면 쉬운 소통이여도 긴장되거나 머리가 잘 굴러가지 않았는데, 이제는 외국인들과 대화를 해도 긴장되지 않고 소통도 어느정도 되기 때문에 너무 좋았습니다. 물론 새로운 표현들이나 외국인 친구들이 사용하는 문장도 배우면서 언어도 늘긴 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실제로 생활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와 닿았고 프로그램 끝난 이후에 다른 곳을 여행했지만 관광지보다 살짝 시골에서 생활을 했던 것이 더 미국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장점	저는 수업보다는 수업 외 시간들이 더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룸메들과 대화하거나 놀러갈 때도 굉장히 도움도 되고 좋은 경험이어서 만약 외국인 룸메이트와 함께 방을 쓴다면 꼭 먼저 다가가는 것도 추천드리고, 기숙사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기숙사에서 여는 파티에 참석해서 대화도 하고 친해지면 좋습니다. 프로그램 속에서도 외국인 친구들이 정말 많은 건 아니지만 반에 몇 명씩 있기 때문에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말해보고 친해질 수 있다는게 정말 장점 같습니다.
	프로그램 개선 요구 사항	중간에 선생님이 바뀌고 수업 퀄리티가 많이 낮아졌는데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전 프로그램 끝나고 로스앤젤레스와 라스베가스 여행을 계획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프로그램 중간에 다른 도시로 여행 다녀오신 분들도 있었고, 끝나고 가는 분들도 있어서 기회가 되면 선택해서 꼭 다녀오시길 추천드립니다. 한 달 프로그램 후에 1주일 정도 여행한 뒤에 한국으로 입국하니 미국에 조금이나마 더 오래있어서 좋은 계획이었습니다. 여행 계획을 하신다면 프로그램 가기 전에 빨리 하실수록 국내선 항공권 가격이 낮으니 미리 구매하시고 가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이시-로스앤젤레스 16만원, 로스앤젤레스-라스베가스 6만원대에 항공권 구매하였습니다.

기타 사항

추후 참가자들을 위한 조언

보이시에 있는 동안 매일 밖에 나가서 활동을 했는데도 아쉬운 점이 더 많이 늘지 못한 것, 더 많은 외국인과 소통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보이시에서 만난 분들이 정말 모두 친절하기 때문에 친해지고 싶으면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말 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쑥스러워 하지 말고 스몰 토크하고 인스타그램 하나고 물어보시면 다들 알려주십니다. 그래도 밤에는 혼자 다니지 마시고, 다른 곳보다는 안전한 지역이지만 몇 번의 좋지 않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을 프로그램이었고 너무 좋았던 시설들과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정말 다녀오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너무 좋았어서 지금도 너무 그리워요.. 도움이 될 만한 사진 몇 장 첨부합니다.

*학교 텀블러나 스타벅스 텀블러 사시는 거 추천합니다! 엄청 건조해서 물을 정말 많이 마시게 되는데 한국에서 가져가지 마시고 예쁜 텀블러 하나 구매하는게 더 좋아요.



4인실 기숙사



기사 앞 정류장

파티(?)

도서관

스타디움

렉센터



어학연수 프로그램 귀국 보고서

파견국가	미국	기관	BOISE STATE UNIVERSITY	파견기간	2024.06.27.-2024.07.27
프로그램	Intensive English program				

성명			
소속			
연락처			

프로그램 지원 사유	스피킹 실력을 늘리고 싶고 문화를 제대로 알고 싶었다		
프로그램 준비 과정	프로그램 등록 및 결제	프로그램 담당자가 안내 해주는대로 따랐다. 원화 혹은 달러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불 할 수 있었다.	
	비자, 항공권, 여행자 보험	<p>항공권은 각자 준비 했다. 다만 총괄 지도자의 안내에 따라 항공권을 구매 해도 된다고 연락이 오면 그 때 구매를 하도록 하는 방향이다. 편도 혹은 왕복은 프로그램 후 자신의 스케줄에 따라 결정 가능했다.</p> <p>짧은 연수 기간이므로 esta비자를 준비 할 수 있었다. (만일 입국 심사 시 걸리더라도 걱정 하지 않아도 된다.)</p>	
	기타 정보 (환전, 준비물 등)	<p>총괄 지도자가 안내해준 보험을 들었다. 약 4만원대가 나왔다 (라OO 손해보험이었다). WinCo 마트는 현지 신용카드 이외에 체크를 받지 않기 때문에 현금 환전을 해가는 것이 좋다. 굳이 이 곳이 아닌 더 가까운 마트를 이용 해도 되지만 윈코가 저렴한 가격에 식료품을 구매 할 수 있었다.</p> <p>우버 회원가입을 미리 해 가면 좋다.</p> <p>드레싱밴드, 거즈, 연고를 챙겨가는 것이 좋다. 만약 상해를 입었을 때 학교 간호대학에 메디컬 센터가 있으므로 그 곳에서 의사와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진료비를 위해 영문으로 여행자 보험 증서를 복사 해가야 진료비를 감면 받거나 지불하지 않을 수 있다.</p> <p>수저 혹은 젓가락을 챙기는 것은 자유이나, 추천한다.</p>	

파견대학 기본 정보	기관 정보	Boise State University
	교육 시설	오리엔테이션을 한 건물에서 수업이 배정될 수 있다. 각 수업마다 다른 교실 혹은 건물을 사용한다. 볼더홀은 기숙사와 매우 가깝다.
	기숙사 시설	2-4인실. 배정은 랜덤이며 주방 유무도 랜덤이다. 넓고 쾌적하지만 에어컨이 너무 추웠다. 방과 방 사이의 방음은 꽤 되는 편이지만 옆호실과의 방음은 잘 안되는 편.
	편의 시설	프론트: 급하면 밴드나 소독용품을 받을 수 있다. 세탁실: 건조기, 세탁기를 무료로 사용 가능하다. 프린트: 컴퓨터와 함께 사용 할 수 있으나 윈도우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사용 시 도움을 받아야한다. 식사: 중-석식 신청자를 위해 식사를 제공하는 장소가 있다.
	기타 정보	Norco Building이 간호대학이다.
지역·생활 정보	교통 여건 및 비용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내 / 다운타운 셔틀버스를 무료로 이용 할 수 있다. Lime이란 공유 자전거를 사용 할 수 있으나 분 당 가격이 한국과 비교해 비싼 편이다. 패스를 끊는걸 추천 (예/30분 패스-5.99달러)
	식사 여건 및 비용	해먹거나 사먹거나. 장을 한 번 볼 때 많은 경우 한화 약 7만원이 나왔다. 외식물가는 팁 포함 비싼 편 이긴 하나 프랜차이즈의 경우 팁을 빼고 평준화 된 가격이다.
	관광지 정보	프릭 앨리 갤러리를 가보면 좋다. 그래피티를 많이 볼 수 있다.
	기타 정보	은행 점검시간을 확인하여 트래블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교육 정보	강의 구성	커뮤니케이션, 리딩 앤 라이팅
	교육 내용	커뮤니케이션: 영어로 대화를 많이 할 수 있으며 재밌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리딩 앤 라이팅: 교재를 가지고 수업하나 단지 글을 읽고 문제를 푼 후 글의 토픽에 대해 이야기한다. 또한 스피치를 작성하고 발표한다.
	강사진	내 레벨에 맞는 수업을 해주고 모두 친절하다. 매 수업마다 보이시에서 가야 할 음식점이나 구경 할 만한 장소들을 알려준다.
	정규수업 외 교육 정보	X
	기타 정보	X
기타활동 정보	기타 활동 내용 및 비용	X
	기타 정보	X
프로그램 참가 결과	프로그램 성과	학생들은 프로그램이 끝나고 수료증을 받았다. 약 한 달 동안 영어로 대화 하는것에 익숙해져 말 하기가 무섭지 않게 되었다. 이것만 해도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일단 내뱉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프로그램 장점	영어로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프로그램 개선 요구 사항	금요일은 공강이면 좋겠다.

기타 사항	기타 참고사항	초바니 플립 시리즈 다 맛있어요 자판기 물 비싸요
	추후 참가자들을 위한 조언	그냥 마음 편하게 다녀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학연수 프로그램 귀국 보고서

파견국가	미국	기관	BSU	파견기간	6/26~7/27
프로그램	단기 어학연수				

성명			
소속			
연락처			

프로그램 지원 사유	평소 해외를 경험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넓히는 것을 좋아하고, 영어권 나라에 가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학교에서 단기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바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준비 과정	프로그램 등록 및 결제	3,968,775원이었으며, SJ교육컨설팅에 입금하여 학생들의 비용을 모두 취합하여 SJ에서 BSU로 입금함	
	비자, 항공권, 여행자 보험	출국 2주 전 ESTA비자 발급 받았음 5/1에 아시아나 인천->LA 항공권 예약함. 인천에서 바로 갈 수 없어서 LA->Boise 국내선 항공권(Spirit Airline) 예약함. 어차피 경유를 해야하기 때문에 LA나 시애틀 같은 곳에서 여행을 하다가 Boise로 넘어가는 것을 추천함. [인슈플러스]에서 긴급이송 패키지-Lv3 상품으로 6주(BSU 4주, 여행 2주)하여 109,600원 들었음.	
	기타 정보 (환전, 준비물 등)	환전은 하지 않았음. 트래블월렛카드를 이용하였으며 가끔 결제가 안 될 때는 한국 농협카드를 사용함. 보통 카드를 다 받기 때문에 꼭 필요하진 않지만 비상용으로 조금 해도 좋을 듯함. 1234	
파견대학 기본 정보	기관 정보	BSU(Boise State University)로 Idaho주에 중심지 같은 곳에 있는 대학이다. 하지만 Idaho주 자체가 미국에서 시골이미지이다. 평화롭고 여유가 느껴지는 곳이어서 좋았다. 시골이긴 하지만 있을 것은 다 있고, 놀거리도 한 달 머물기에는 충분하다.	
	교육 시설	한국 대학 강의실처럼 넓은 느낌이 아니라 좁고 선생님과 거리가 가까운 느낌의 강의실에서 수업하였다. 한 테이블에 4명 정도가 앉는 조별 수업 느낌으로 진행된다. 화장실이 가까이에 모두 있고 자판기도 쉽게 볼 수 있어서 괜찮았다.	
	기숙사 시설	기숙사 방 내에 부엌과 거실이 있다는 점이 정말 좋았다. 2인실/4인실 랜덤, 부엌 유무 랜덤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엌이 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없더라도 공용주방이 있어서 기숙사 내에서 요리를 해먹기 좋았다. 나는 2인실, 부엌 0에 배정을 받아서 보통 끼니를 장을 보고 방 내에서 해결하였다. 방은 각 방이며 방에 책상, 침대, 옷장이 구비되어 있다. 침대가 정말 높긴 하지만 폭신했다.	
	편의 시설	REC center라고 체육관 같은 곳이 있는데 한 달에 47.7달러(약 65000d원)의 비용을 지불하면 헬스장, 수영장, 클라이밍, 스쿼시, 농구, 배구, 등 다양한 스포츠를 무료로 할 수 있다. 배구 같은 경우 직원에게 요청하면 직접 코트를 설치, 해체 해주기 때문에 나중에 친구들을 사귀기 이후 다같이 하면 재밌다.	
기타 정보	Broncos Shop이라고 학교의 기념품을 파는 곳이 있는데 생각보다 규모가 크고 괜찮은 아이템이 많다. 나이키나 챔피온 같은 브랜드와 콜라보가 되어 있는 옷이 많다. 학교 기념품 이외에서 아예 Boise 기념품도 많다. 잘 찾으면 싼 것도 많다.		

지역·생활 정보	교통 여건 및 비용	학교와 시내를 순회하는 버스가 있는데 학교 학생증을 보여주면 무료이다. 돈 내고 버스를 탄 적은 한 번도 없어서 버스 교통비는 0원이다. 다만 좀 버스가 일찍 끝진다. 정확한 시간은 기억이 안 나지만 오후 7시~8시 정도 사이인 것 같다. 하지만 시내나 주요 마트는 걸어서도 갈 수 있는 정도의 거리이기도 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도 있다. 시내를 갈 때 택시비는 보통 7000~10000원 정도라 사람 모아서 같이 다니면 좋다.
	식사 여건 및 비용	학식을 신청하지 않아서 그에 대한 정보는 잘 모르지만, 2번 당일 식권 구매하여 식사해보았다. 14달러 정도 였던 것으로 기억하며 햄버거, 고기, 디저트 등 나름 잘 나오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14달러를 주긴 좀 아까웠다. 보통 링코에서 장을 봐서 기숙사 방 내에서 룸메이트와 스파게티나 햄버거를 만들어 먹거나 스테이크를 자주 구워먹었다. 훨씬 싸고 괜찮다. 외식은 보통 한 끼에 20달러정도는 잡아야 될 정도로 비싼 편이다.
	관광지 정보	<p>아이다호주에 유명한 Yellow Stone이라는 관광지가 있다고 해서 가려 했으나 대중교통이 마땅치 않고 차로는 7시간 정도라 갈 수 없었다. 만약 생각이 있다면 국제면허증을 받아오길 추천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owntown: 시청이나 옷가게, 식당, 영화관 등을 갈 수 있음. - Julia Davis Park: 공원으로 가끔 행사가 열리기도 함. 피크닉 가기 좋음 - Zoo Boise: 동물원임. 큰 동물원은 아니고 깔끔한 느낌도 아님. 입장료 있음. 재미있기가 신기했음. 한 번쯤 가보는 것은 나쁘지 않을 듯 추천 - floating: 학교 옆에서 보트나 튜브를 타고 강을 건너는 플로팅이 있는데 매일 할 수 있음. 셔틀(4달러)버스를 Ann Morrison Park에서 타고 가서 다시 돌아옴. 튜브/보트는 몇 인용이냐에 따라 인당 가격이 달라짐. 13~20달러 정도인데 학교 REC center 안에 렌탈샵이 있음. 거기서 대여하면 더 싸. 차 있는 외국인 친구를 사귀어서 같이 가는 것을 추천함. 그러면 셔틀버스비도 필요 없고, 차에 튜브 싣고 갈 수 있으니 학교 대여로 비용 절약, 그리고 튜브/보트 time limit이 사라져서 더 알차게 놀 수 있음. 중간중간 다이빙할 수 있는 spot들이 있어서 재밌음. 신발은 잘 고정되는 신발을 신어야 함. 본인은 다이빙 후 신발(쪼리와 샌들 사이의 느낌) 잃어버림. 다이빙 안 해도 휴대폰 잃어버린 친구들도 봤으니 조심 - Bronco Stadium: American Football 경기장인데 가끔 경기도 있으니 잘 보고 가면 재밌음 - Memorial Stadium: 야구장임. 싸 가격에 가까워서 볼 수 있어서 재밌음 - Table Rock: 짧은 하이킹을 할 수 있는 곳으로 5am에 학교에서 출발하여 일출봄. 추천함. 일출이 예쁘고 사진도 멋있게 나옴. - Meridian: Downtown 보다 멀지만 칼하트, 레고 등 좀 더 다양한 쇼핑거리가 있음 - Bogus Basin: 겨울에는 스키장이며 여름에는 하이킹, 산악 자전거, 알파인 슬라이드 등이 운영됨. 우리는 여름이고 가격이 싸 편이 아니라 Coaster 하나만 탔음 참고로 학교에서 출발 기준으로 우버가 잘 잡히지도 않고 산을 엄청 올라가야 돼서 가격도 많이 나옴. 심지어 다시 학교로 돌아가야 될 때는 우버가 안 잡혀서 직원에게 사정을 말하고 직원 버스를 타고 내려오게 됨. - Independence Indoor Shooting: 실내 사격장으로 Meridian에 있음. 레인 하나를 구매 하고 탄을 구매하면 총은 탄에 맞는 총으로 바꾸면서 쏠 수 있음. 친구들과 가서 레인 하나를 공유하여 써야 절약 가능함. 흔한 경험이 아니고 너무 재밌었어서 추천하고 싶음
	기타 정보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함께 다녀야 좋은 거 같음. 돈 절약과 좋은 추억 생성 가능

교육 정보	강의 구성	Reading&Writing(약 2시간 수업/일주일에 3번), Communication(약 2시간 수업/일주일에 3번), Integrated Skills&Experiential Learning(약 3시간 수업/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요일 점심 이후 Tea&Talk는 자율로 참여함. 학교 오기 전 실시한 레벨테스트에 따라서 반이 나뉘어짐.
	교육 내용	Reading&Writing: 교재가 있어서 그 교재 안에 에세이? 글을 읽고 조원들과 생각을 공유한 후 발표하는 형식으로 1시간 진행 이후 게임처럼 재밌는 활동을 통해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시간 1시간 느낌으로 진행됨. 숙제로는 Opera House책을 하루에 7p정도씩 읽고 요약과 단어정리하는 것이 있음. 다음날 수업 시작시 검사함. 가끔 Writing 과제로 글쓰기가 있는데 주제가 달라짐. 미국 Idiom을 알아보고 발표하는 과제도 있었음. Communication: 선생님께서 매일 다른 주제를 가져오셔서 수업 시작할 때 주제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조원들과 상의해보고 발표해보는 식의 수업이 많았음. 또한 후반부에는 항상 재밌는 게임을 준비해주셔서 재밌었음. Integrated Skills&Experiential Learning: 사실 무엇을 배우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재미있었음. 야외로 tour를 가기도 했음. 보통 수업 내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수업이며 마지막 날에는 Boise에서 추천하고 싶은 활동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음.
	강사진	수업마다 그리고 레벨마다 선생님들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음. 때문에 프로그램 끝까지 알지 못하는 선생님도 있음. 선생님들 모두 친절하시고 좋았음.
	정규수업 외 교육 정보	Tea&Talk 시간에는 현지인들이 사용하는 표현을 배울 수 있고 게임이 준비되어 있음. 자율참여라 참석율이 매우 높은 편은 아니었음.
	기타 정보	아플 때나 일이 있을 때는 선생님께 이메일을 보내고 빠질 수 있음.
기타활동 정보	기타 활동 내용 및 비용	보통 외식비(패스트푸드 말고 식당) 한끼에 3만원 정도
	기타 정보	미국은 술 마시는 나이가 만 21세임.
프로그램 참가 결과	프로그램 성과	4주로 영어 실력이 엄청나게 눈에 띄게 좋아졌다기보다는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신감이 늘은 거 같다. 또한 자주 사용하는 일상 연어가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졌다. 외국인 친구가 많지는 않았지만, 중국, 콜롬비아, 터키와 같은 다양한 나라의 친구를 만날 수 있었다. 영어 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문화와 특성에 대해 배우고 느낄 수 있었다는 점 또한 프로그램의 중요한 성과인 듯 하다. 넓고 자유로운 곳에서 생활하며 세상을 보는 시야가 한층 넓어졌다.
	프로그램 장점	등록금의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주기 때문에 합리적인 비용으로 다녀올 수 있는 점이 가장 장점 같다.
	프로그램 개선 요구 사항	항공권 예매를 위해 조금 더 빨리 진행해주었으면 좋았을 거 같다.

	기타 참고사항	Boise는 시골마을이라고 현지인들도 많이 말하지만, 있을 것은 다 있고 딱 1개월 있기에 정말 좋은 곳 같습니다. 친절한 사람이 대부분이며 여유로운 분위기가 살고 싶다고 느껴지는 동네입니다.
기타 사항	추후 참가자들을 위한 조언	성적이 안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신청하지 않기보다 어느나라더라고 꼭 신청하고 경험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좋은 기회이며 본인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욱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학연수 프로그램 귀국 보고서

파견국가	미국	기관	Boise university	파견기간	1개월
프로그램	하계 단기 어학연수(IEP)				

성명			
소속			
연락처			

프로그램 지원 사유	학생의 신분으로 외국에서 살아보는 경험을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다.		
프로그램 준비 과정	프로그램 등록 및 결제	선발되었다는 문자와 전화를 받고 오픈채팅방에 들어간 이후에 계좌나 정확한 금액을 안내받고 등록하였다	
	비자, 항공권, 여행자 보험	ESTA비자를 사용했고 거의 이틀이 되기전에 승인을 받았다. 항공권은 갈때는 환승을 2번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저렴한(80만원 후반대)항공권을 사용했고, 돌아올때는 시애틀에서 한번 경유하고 빠른 시간으로 도착하는 항공권을 이용했다. 여행자보험은 들지않았다.(혹시의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기때문에 드는것이 맞는것같다)	
	기타 정보 (환전, 준비물 등)	환전은 따로 해가지않았다 토스뱅크카드와 삼성 해외전용신용카드 사용했다. 원코(마트이름)에있는 현금인출기를 사용하면 2달러 이하로 근처에서는 가장 저렴하게 현금을 인출할 수 있었다.	

파견대학 기본 정보	기관 정보	아이다호 보이시를 대표하는 학교 같았다. 다운타운을 나가도 학교기념품샵이(브론코샵) 아주크게 있었다.
	교육 시설	좋았다. 깔끔하고 시원하고 쾌적했다.
	기숙사 시설	나는 2인실에 키친이 없는 방을 사용했다. 어찌면 기숙사 방중에 가장 안좋은 방이었다. 다른 방들은 2인실, 4인실에 키친이 있고 없고의 차이였다. 주방의 유무였지만 거실의 크기에 차이가 2배 정도 났기 때문에 그 점이 아쉬웠다(완전 랜점으로 방 배정이 된다) 하지만 다른 방에도 놀러가고 우리방 바로 맞은편에 아주 크고 쾌적한 공유주방이 있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은 없었다.(공유주방은 거의 키친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 한국인만 사용했던 것 같다. 그래서 더 넓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고 오히려 방에 음식냄새가 안나서 좋았던 점도 있었다.) 그리고 외국인 룸메이트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우리학교 학생들은 다 한국인 같은 학교를 기준으로 배정되었다.(딱 2명만 외국룸메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편의 시설	주변에 마트 중에서 윈코(winco)라는 마트를 가장 많이 이용했다. 거리로 보면 더 가까운 마트도 있었지만 확실히 윈코가 가장 싸다. 단점이라하면 거리(걸기엔 살짝 멀고, 우버를 타기엔 너무 가까웠다), 결제 부분이였다. 결제는 거의 현금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몇몇 카드는 가능했다고 들었긴 한데 내가 사용한 토스카드, 삼성해외전용신용카드는 불가능했다. 그래서 윈코에서 돈을 인출해서 사용하기도 했다. 인출 또한 윈코가 수수료가 가장 저렴했다. 그리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팬트리라는 공간이있는데 여기서 다양한 마트에서 온 식재료들을 무료로 가져갈 수 있다.(월, 화, 목 오픈됨) 처음에는 몰라서 다 사먹었지만 2주차 쯤 안 후로부터는 계란, 우유, 각종과자, 감자 등은 정말 다 거기서 가져다 먹었다. 날짜가 지났거나 지날 식재료이기 때문에 꼭 상태를 체크하고 먹어야한다.
	기타 정보	학교에서 한달에 45달러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IEP 학생들에게만 아주 좋은 가격에 스포츠 센터를 등록할 수 있게 해줬다. 나는 이 센터에 가입하는걸 너무 추천한다. 일단 너무 좋은 시설과 다양한 스포츠를 해볼 수 있었다. 스쿼시, 농구, 배드민턴, 수영, 클라이밍, 아주 다양한 웨이트 기구들, 러닝할 수 있는 공간, 요가룸, 엄청 크고 다양한 공간이다. 정말 45달러가 아깝지 않았다. 그리고 은근 평일에 학교 마치고 할게 없다. 센터에 가서 운동하면서 운이 좋으면 다른 나라 친구들과 소통할 수도 있는 기회를 가질수도 있다. *수영장을 갈 계획에있는 사람은 수영복을 챙겨오는 것을 추천한다.(물안경은 빌려줌)

지역·생활 정보	교통 여건 및 비용	학교에서 학생증을 주는데 거기에 우리에게만 붙여주는 스티커 같은게 있었다. 그 스티커만 보여주면 우리학교 셔틀버스, 시내버스 등 다~무료로 사용했다. 거리가 너무 멀고 버스로 해결이 안될거리는 우버를 사용했다. 우버비용도 비싸지 않다.
	식사 여건 및 비용	주로 해먹거나 한번씩 사먹었다. 미국에 가기 전에 선택적으로 아침점심저녁 등 학식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나는 비추천한다. 왜냐하면 점심시간은 40분인가 50분으로 너무 짧았고 거기에 수업 후 이동시간까지 하니 더 짧았다. 저렴한 비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짧은 시간에 그 학식을 다 즐기지 못한다. 그래서 정기권을 사지말고 원할때만 하루하루 그 앞에서 사서 먹을 수 있다. 그런 방법을 추천한다. 그리고 정기권보다 바로 사서 이용했던 가격이 더 저렴했다.(14달러 정도) 왜 정기권이 더 비싸게 책정되었는지는 다들 의문이었다. 그리고 식재료 물가가 너무 싸기 때문에 한국에서 비쌌던 소고기를 많이 사먹었다. 한국에서는 정말 비쌌던 부위의 고기도 다 먹어보고 나중에는 소고기가 질릴 정도로 많이 먹었다
	관광지 정보	나는 플로팅 활동을 완전 추천한다. 매주 수요일이 10달러씩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데 나는 너무 재밌어서 매주 갔다. 바버파크에서 줄리아 데이비스공원까지 가는 루트였던 것 같다. 2시간 반정도 거리인데 중간 중간에 보트를 세워서 다이빙 할 수도 있고 재밌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즐길 수 없는 생소한 플로팅이기 때문에 아주 추천한다;
	기타 정보	
교육 정보	강의 구성	reading 수업, writing수업이 주로 하는 수업이었고 일주일에 한번 있는 수업으로 커뮤니케이션?비슷한 수업이었다. 총 세 개의 클래스로 구성되었다.
	교육 내용	내용은 거의 비슷하고 현지에서 사용되는 숙어같은 표현도 배울 수 있었고 어떤 주제에 대해 이야기 하는 수업도 있었다. 수업의 내용이 전문적이지는 않다.
	강사진	내가 담당하셨던 선생님분들은 알아듣기 쉽게 천천히 말씀해 주시는 느낌을 받았고 모두 친절하고 좋으셨다.
	정규수업 외 교육 정보	일주일에 한번 tea and talk 이라는 활동이었다. (선택적으로 참여) 한시간동안 진행되고 딱 한번 참여했는데 점심식사 이후에 진행되서 간단하게 참여하기 좋았다.
	기타 정보	전문적인 수업의 느낌이 보단 선생님과 다른 학생들과 시간을 보내는 느낌이 더 드는 느낌이다.
기타활동 정보	기타 활동 내용 및 비용	수업외의 활동에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드는건 없었다. 수업외의 활동으로는(티애크활동 제외)딱 한번 주말에 열렸던 선택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다른나라 친구들과의 교류를 기대하고 갔는데 에초에 참여 인원이 약 12명 정도로 정말 수가 작았다. 그 점이 아쉬웠지만 무료로 활동에 참여하여 학교 기념품 샵의 선물을 받았다는 점이 좋았다.
	기타 정보	

프로그램 참가 결과	프로그램 성과	해외에서 여행이 아닌 거주자, 학생으로서 살아보는 경험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다. 그리고 회화적으로도 실력이 는 것 같다. 물론 한달로 완벽하게 늘기는 어려웠지만 외국인과 대화함에 있어 두려움은 확실히 없어졌고 상대방이 천천히만 말해주면 거의 모든 말을 이해하고 대화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었다. 원어민들끼리 하는 말을 이해하는 데에는 아직 부족하다.
	프로그램 장점	가벼운 마음으로 힐링하는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다. 한국에서 할수 없는 활동들(플로팅)을 할 수 있다.
	프로그램 개선 요구 사항	오전수업과 오후 수업 간의 점심시간이 너무 짧다(40분인가 50분 정도로 짧았다) -> 점심시간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프로그램 전 학생들끼리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프로그램 이후의 여행 등을 위해) 나는 가서 다 친해져서 생활하면서 문제가 있던 것은 아니지만 프로그램 이후 여행을 하려고 비행기 계획을 바꾸려고 하니 수수료가 너무 많이 들었다.(30만원정도) 미국을 자주 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변의 엘에이나 라스베가스 여행하는 사람이 많았고 나도 수수료만 아니었어도 무조건 갔을 것 같다. 미국 오기 전부터 같이 여행할 사람이 있어서 계획했다면 좋았을 아쉬움이 남는다. 같이 단체로 갔던 학교 중 부경대가 있었는데 그 학교는 사전에 같은 수업을 들으며 친해지고 알아가는 기회를 줬다고 한다.

	<p>기타 참고사항</p>	<p>일단 학교에서 진행되는 수업의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생각했다.(수업비용이나 추가 비용에 비해)하지만 오히려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기도 했다. 수업으로서 얻는 경험 보다는 거기서 학생의 신분으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두면 좋을 여학연수 같다.</p>
<p>기타 사항</p>	<p>추후 참가자들을 위한 조언</p>	<p>생각보다 다같이 많이 해먹는데 소금설탕 등 간단한 조미료는 들고 오는 게 좋다. 프로그램 끝날 때 반의 반도 안 쓴 조미료들을 다 버리고 왔다..</p>

어학연수 프로그램 귀국 보고서

파견국가	미국	기관	Boise State University	파견기간	6.26 ~ 7.27
프로그램	Intensive English Program				

성명			
소속			
연락처			

프로그램 지원 사유	<p>영어를 더 깊이 이해하고 자유롭게 의사소통하기 위함과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현지 문화와 생활방식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시야를 넓히고자 지원하게 되었다. 또한, 낯선 환경에서의 경험을 통해 자립심과 자신감을 얻고자 하였다.</p>		
프로그램 준비 과정	프로그램 등록 및 결제	<p>학교 홈페이지의 공지와 샘플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해외연수프로그램에 손쉽게 신청할 수 있었고, 담당 에이전트의 친절한 설명 덕분에 연수비를 지불하는 것 또한 어렵지 않았다.</p>	
	비자, 항공권, 여행자 보험	<p>ESTA(비자): 에이전트는 적어도 일주일전에 신청해 둘 것을 추천하였다. U.S. Customs에서 운영하는 공식사이트에서 한국어지원을 하고 있고 에이전트가 제공해주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큰 어려움 없이 지원이 가능하였다.</p> <p>항공권: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 부분 중 하나였다. 항공권의 특성상 출국일과 가까워질수록 항공권의 가격이 비싸지고, 취소 및 변경과 관련된 약정도 악랄해진다. 미국 학교 측에서 확답이 늦어 항공권을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Boise로 가기위해서는 미국의 큰 거점 공항에서 입국심사와 환승을 해야만 한다. 필자의 경우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에서의 환승시간이 1시간 20분이었다. 인천공항 Check-in 카운터 직원분께서 환승시간이 촉박할 것 같다고 Priority Tag를 달아주셨다. Priority Tag가 없었다면, 비행기를 놓쳤을 지도 모른다. 짐을 찾는 것부터 입국심사를 통과하는 것 까지 고려하면 환승시간을 적어도 2시간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또한, 위탁수화물이 자동으로 환승할 비행기에 붙여지는지, 아니면 짐을 찾아 다시 붙여야하는지도 고려해야한다. 항공권을 구매할 때 취소 및 변경과 관련된 규정, 환승시간, 수화물 RE-CHECK여부를 잘 고려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미국을 떠나는 항공권을 예약해 놓는 것이 좋다. 비자발급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미국에 발을 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입국심사를 통과해야하는데, 이때 미국을 떠나는 항공권이 없다면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다고 한다.</p> <p>여행자 보험: 구조송환비용, 휴대폰 손해, 해외의료비, 항공기 및 수화물 지연/결항 등 보장내용이 다양하다. 여행을 하면서 많은 사건, 사고가 있겠지만, 필자는 그 중에서 구조송환비용과 관련된 보장이 많은 상품에 가입하였다. 해외에서 크게 다쳐서 한국에서 치료를 받기위해 이동하는 비용이 굉장히 비싸다고 들었기 때문에 구조송환비용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상품에 가입하였다. 필자는 미국에 체류하면서 크게 다치거나, 병원에 내원한 적이 없었다. 개인의 여행성향에 맞게 가입하면 좋을 것 같다.</p>	
	기타 정보 (환전, 준비물 등)	<p>환전: 트레블 월렛, 트레블 로그, 신한 SOL트레블과 같이 해외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카드상품들이 존재한다. 카드는 적어도 2개정도 준비할 것을 추천한다. 카드 도난을 대비하여 여러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십 만원 단위로 환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환차손에 대해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된다. 환차손이 발생해봐야 1만원 이하일 것이다. 그러니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환전하는 것이 맘</p>	

		<p>편하다. 또한, 사람들 간 정산을 해야하는 경우 원화로 정산을 해야 할지 외화로 정산을 해야 할지 고민인데, 공통으로 사용할 결제수단을 정해놓는다면 편리할 것 같다.</p> <p>준비물) 캐리어: 생각보다 많은 소비를 하게 되므로 무료 수화물 규정에 맞게 캐리어를 최대한 넉넉하게 들고 갈 것을 추천한다. 귀국 시에 짐이 상당히 많아질 것을 예상하고 충분히 들고 갈 것을 추천한다.</p> <p>로밍: 한국에서 중요한 연락을 받을 일이 생길 것을 대비해 로밍을 하는 것도 추천한다. 시기에 따라 나에게 중요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생긴다. 필자가 갔을 때, 미국학교 측에서 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5GB용량의 U-SIM을 제공해 주었다. 그러니 적당한 요금제의 로밍에 가입하면 좋을 것 같다.</p>
파견대학 기본 정보	기관 정보	미국 아이다호주 보이시에 위치한 공립 대학이다. 도시형 캠퍼스로, 보이시 시내 중심부에 위치해있다.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에 강점이 있다고 들었다. 미식축구 팀인 Boise State Broncos가 매우 유명하다. 팀은 뛰어난 경기력과 독특한 파란색 경기장(보이시 필드)으로 잘 알려져 있다.
	교육 시설	교육 시설에 대한 불만은 없었다. 학생 수에 비해 넓고 쾌적한 교실을 가지고 있다. 20명 남짓의 학생들이 수업을 듣기에 무리는 없었다.
	기숙사 시설	기숙사 시설 역시 만족스러웠다. 거실, 화장실, 주방과 같은 공용시설이 넓게 존재하고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개인호실이 분리되어있었다. 주방이 있는 호실의 경우 30평대 정도 돼 보였다. 개인공간의 경우 층고가 높았고 짐과 옷을 보관할 수 있는 옷장, 퀸 사이즈 이상의 넓고 두툼한 매트리스의 침대가 존재하였다. 또한, 책상과 의자도 준비되어 있었다. 다만, 바닥이 카펫 재질이어서 실내화 혹은 신발을 신고 있어야한다.
	편의 시설	기숙사 내에 공용공간에 취사를 할 수 있는 주방과 냉장고가 준비되어 있다. 마트에서 사온 음식을 보관하고 요리할 수 있었다. 그리고 티비와 쇼파가 있는 공간도 존재한다.
	기타 정보	교내에 Pantry가 존재한다. 주변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거나 약간 지난 제품을 학교 측으로 전달한다. 학생들이 채소, 냉동고기, 인스턴트 라면 등을 무료로 가져갈 수 있다. 토마토 스파게티 소스, 화장지, 세탁세제, 섬유유연제와 같은 기본적인 생필품도 존재한다. 물류가 들어오는 날이 정해져 있어서 월, 화, 목에만 운영한 것으로 기억한다.
지역·생활 정보	교통 여건 및 비용	학교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시외버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멀리 이동하기에 무리가 없다. 학교 셔틀버스와 시외버스를 적극 이용하여 우버를 덜 타면 좋을 것 같다.
	식사 여건 및 비용	직접 요리를 해서 먹거나 교내 학생 식당에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다. 점심시간이 1시간도 안 되기에 학교를 벗어나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미리 사놓은 식재료 혹은 인스턴트 재품을 조리하여 먹었다. 학생 식당의 경우 뷔페식이기 때문에 다양한 음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격은 \$13.77였다. 한화로 약 20,000원정도 이다.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p>관광지 정보</p>	 <p>Idaho State Capital: 주 정부 청사로 시청과 같은 건물이다. Idaho의 역사에 대해 알 수 있다. 건물과 조경이 상당히 아름답다. Julia Davis Park, 학교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 공원 내에 동물원과 야외극장이 존재한다. 야외극장에서 오페라나 영화 상영을 한다. 그리고 주변에 미술관도 있어 문화생활을 하기에 충분한 곳이다. Boise River: 학교 옆을 지나가는 강이다. 많은 사람들이 보트, 카약, 패들보트를 타고 강 하류까지 이동한다. 또한, 물놀이를 하는 사람들도 많다. 피크닉겸 물놀이 하기에 적당한 곳이다. 4인용 보트 혹은 1인용 튜브를 대여하여 레프팅을 즐길 수 있다. Downtown: 시내에 영화관, 레스토랑, 일식집, 라멘집, 한식집등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이 많다. 또한, Pub과 Bar가 존재하여 밤문화를 즐기는 것도 가능하다.</p>
	<p>기타 정보</p>	<p>차량으로 6시간정도 떨어진 곳에 Yellow Stone National Park가 있다. 차량을 렌트할 수 있다면 한 번 가보는 것도 추천한다.</p>
<p>교육 정보</p>	<p>강의 구성</p>	<p>Reading & Writing, Communication, Intensive Skills & Experiential Learning으로 구성되어있다. 말 그대로 듣기와 쓰기 수업,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한 수업, 앞선 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을 응용해보는 수업으로 구성되어있다.</p> <p>교육 내용</p> <p>Reading & Writing: 영어지문을 읽고 문제를 푼다. 그리고 간단한 주제의 영작과제를 통해 읽기와 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Communication: 의사소통과 관련된 수업이므로, 회화적 표현, 영어단어 등을 알려준다. 토론 및 토의 수업이 주를 이룬다. 그리고 발표프로젝트가 존재하는 반도 있다. 말하기가 주인 수업이다. Intensive Skills & Experiential Learning: 위 두 수업을 합쳐놓은 수업이다. Small Talk를 하도록 유도하기도 하고 현장체험학습을 한 후 인스타그램 피드를 작성해보는 시간을 갖기도 한다. 이 수업은 최종 발표 과제가 존재한다. 글쓰기, 듣기, 말하기, 발표와 같은 능력을 기를 수 있다.</p> <p>강사진</p> <p>매우 훌륭한 강사진이라고 생각한다. 강사진 모두 영어 구사능력 뿐만 아니라, 어떻게 가르쳐야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사진들이 학생들에게 진심이었다고 생각한다. 수업뿐만 아니라 미국의 문화, 자신만의 맛집을 공유해주기도 하였다.</p> <p>정규수업 외 교육 정보</p> <p>Tea & Talk: 평범한 주제에 대한 말하기, Small Talk를 하도록 유도한다. 몸으로 말해요와 같은 게임을 진행하기도 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외국인들의 참여율이 높다. 외국인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필히 참석해야하는 수업은 아니다</p> <p>기타 정보</p> <p>꼭 들어야 하는 정규수업과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이 나뉘어져있다. 어학연수기간에 공휴일이 있고 선택적으로 참여 가능한 수업이 있다면, 그 시기에 다른 도시로의 여행을 계획해도 좋을 것 같다.</p>
<p>기타활동 정보</p>	<p>기타 활동 내용 및 비용</p>	<p>Boise River Floating: 강에서 즐길 수 있는 여가활동으로 수요일 날 가면 인당 약 \$20정도 했다. 4인용 보트 혹은 1인용 튜브를 대여하여 강 하류까지 가는 것으로 약</p>

		2~3시간 정도 걸린다. 더운 날씨에 어울리는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꼭 해보길 추천한다.
	기타 정보	https://downtownboise.org/events/events-calendar 해당 사이트에서 Boise에서 어떤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해당 사이트는 현지 선생님께서 알려 주신 사이트이고 유용한 사이트라고 생각한다.
프로그램 참가 결과	프로그램 성과	어학연수 전에는 영어로 일상적인 대화조차 어려웠지만, 현지에서의 몰입형 학습과 실생활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영어 실력이 크게 향상되다.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교류하며 각국의 문화와 관습을 직접 체험했다. 이를 통해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폭넓은 시각을 가지게 되었으며, 국제적인 감각과 수용력을 키웠다. 낯선 환경에서의 생활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과 적응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법을 배웠으며,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고 자신감이 생겼다.
	프로그램 장점	어학연수를 통해 얻게 된 언어 및 문화적 역량은 다양한 진로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국제적인 비즈니스 환경에서 일하고자 하는 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게 되었다.
	프로그램 개선 요구 사항	항공권을 준비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기타 사항	기타 참고사항	기숙사 내부에서는 주류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주류를 반입하여 관계자에게 걸리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폐기해야 할지도 모른다. 선물용 주류를 구매할 것이라면 귀국일에 맞춰 구매하길 추천한다. 언제가 먹겠지 하면서 식료품을 구매하거나 펜트리에서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다. 우리가 머무는 기간이 약 한 달가량인 것을 잊지 말자. 어차피 다 못 먹는다. 그때그때 장을 보자. 자주 외식을 하게 될지도 모르니 펜트리에서 무리하게 많이 가져오지 말기를 추천한다.
	추후 참가자들을 위한 조언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고 기회의 땅이라고 여겨지는 미국에서 다양성과 포용성, 경제적 강대국, 과학과 기술 혁신, 민주주의와 자유, 교육과 학문, 문화적 영향력, 글로벌 리더십, 이 모두를 경험해 보길 바랍니다. 결코 잊지 못할 경험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후회 없이 경험하고 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Los Angeles, Las Vegas, Seattle, San Francisco와 같은 미 서부의 대도시들을 여행해보길 추천합니다. 영어적 능력은 물론 개인의 식견을 넓힐 수 있을 것입니다.